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April 2013 vol.97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
박덕배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배준식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서울경제분석센터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서울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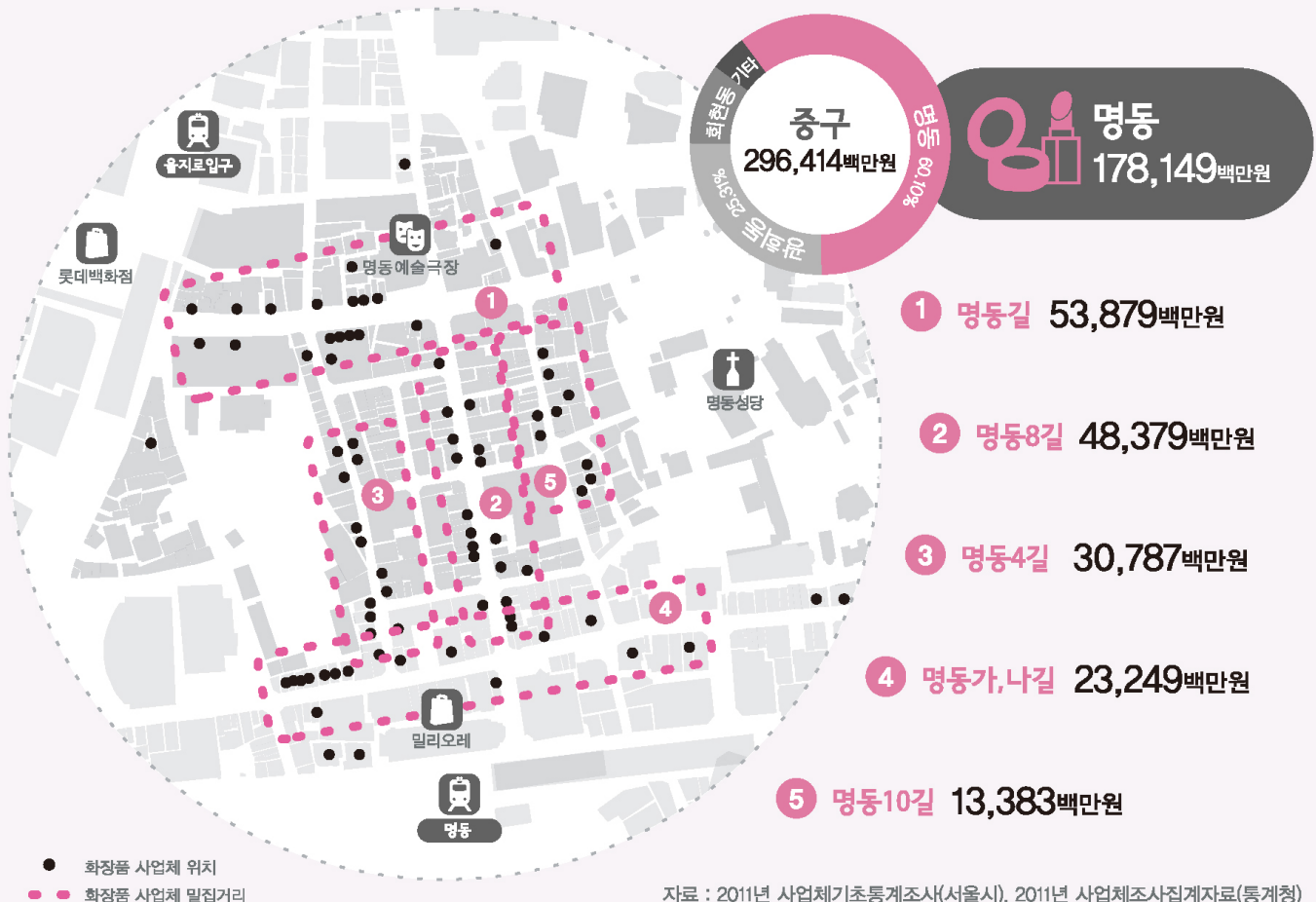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4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1순위, 중구 명동거리

2011년 자료 기준



이달의 이슈 3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0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배준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생생리포트 19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인포그래픽스 33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동향 39 요 약
41 생 산
44 소 비
46 고 용
52 물 가
54 부동산
60 금 융
69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부록 75 통계표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1. 금융소외 현상의 심화

몇 년 전부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복지 문제가 크게 부상되었고, 얼마 전에는 그 복지가 선별적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보편적 적용은 비단 복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도 보편적 금융의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외(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금융배제) 현상은 금융접근성 차원에서 금융거래를 위한 원초적인 접근이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으로 차단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소비자금융이 직접금융시장에, 저신용자가 은행 대출시장 또는 신용카드 발급시장에, 일반 금융소비가 공동체 금융기관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버팔로뉴욕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 하나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등
- 정책성 서민금융의 효율성 제고 방안(2013), 2013 주택시장 전망의 4가지 특징(2012), 예코부머의 3대 경제난(2012) 등

(협동조합, 신탁 등)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국내 금융시장에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금융소외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신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 접근이 쉽지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중·고 신용등급자의 경우 58%가 은행을 주로 이용하나, 저신용등급자의 경우 은행 이용 비율은 31.0%에 그치며 오히려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44.8%로 더 높다.

<표 1> 신용등급별 금융회사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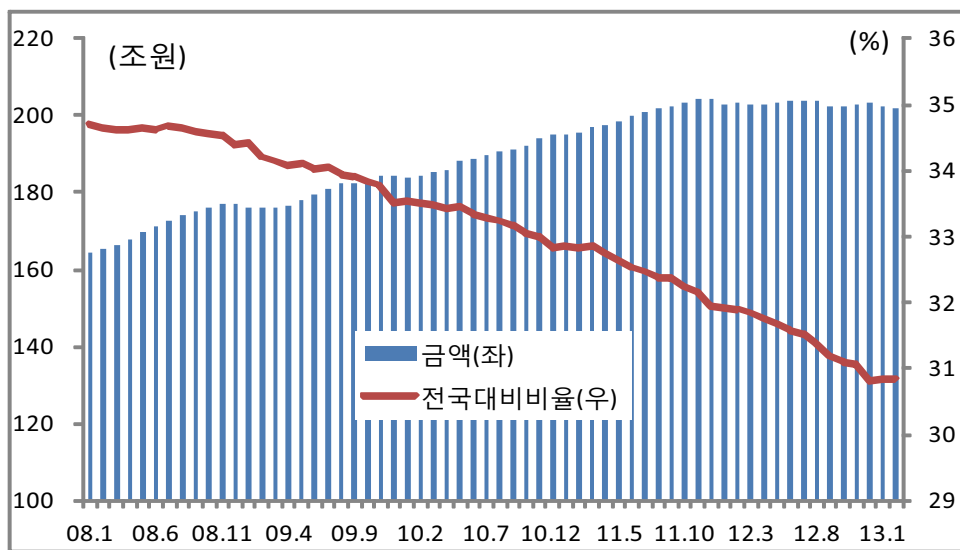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기타
신용등급 1~6등급	58.0%	2.1%	11.8%	8.7%	19.5%
신용등급 7~10등급	31.0%	18.9%	12.3%	13.6%	24.3%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현황 및 시사점”

한편 금융소외 현상은 금융거래 비용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접근이 차단되지는 않으나 합리적 가격으로 적정한 금융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은 금리가 낮고 단위당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대출계약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는 서민우대 정책금융이 아니면 주로 제 2금융권의 소액대출을 이용하면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 금융접근성과 거래비용 측면에서 동시에 금융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유동성제약 계층 내지 금융소외 대상은 약 15%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CB)인 KCB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전체의 약 16%인 644만 명이 7~10 등급자에 해당된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경험자 중 15.2%가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대략 10% 정도의 가구가 광의의 차입제약에 직면해 있고, 대출 목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지역별 금융소외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서울시의 금융소외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의 금융소외 현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서울시 가계대출은 2008년 약 165조에서 2013년 2월 약 201조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대비 서울시 가계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4.7%에서 30.8%로 3.9%p 줄었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소외 현상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1] 서울시 가계대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국내 서민금융 현황

서민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말한다.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신용등급 기준으로 저신용층인 6~10 등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일컫는 경향이 있다.

신용등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통적 서민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이 취급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신용대출 영역과 서민금융 영역에는 차이가 많다. 국내 은행도 고신용자뿐만 아니라 사회망홀씨대출 등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서민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시장 중심적 경영원칙과 서민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금융소외 계층들의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 계층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 증대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금융소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득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가 장기간 위축될 경우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상실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성장 기반이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 등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확보하고, 심각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이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소외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치명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보증 등을 통해 저신용계층의 신용을 보강하여 서민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적절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저신용 서민들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위험이 높아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되는 일반금융을 통해서도 금융소외를 겪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이 제공되고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햇살론은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사업운용자금 및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을 9~12%대의 금리 대출하고 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이다.

<표 2> 3대 서민금융 상품 요약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출시년월	2009년 12월	2010년 7월	2010년 11월 (5년 간 한시)
지원목적	소규모창업/ 사업운영자금	소규모창업/사업운영자금, 일반대출(생계자금)	일반대출(생계자금)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또는 기존사업자 중 저소득자나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 이하) 중 하나의 요건 충족자	연소득 4천만 원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이며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창업자금 최고 7천만 원,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등 최고 2천만 원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근로자생계자금 및 대환자금 각 1천만 원, 3천만 원 한도	최고 2천만 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대출금리 (상환기간)	2~4.5% (5년 이내)	9~12%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등)	11~14% (1~10년)
신청기관	156개 미소금융 지점	3,750여 개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	16개 시·중·지방특수은행
지원규모 ('12.6기준)	32,349건, 4,450억 원	230,771건, 2조 520억 원	289,390명, 2조 5,168억 원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권 영업이익의 약 10% 내외를 자체재원으로 조달해 11~14%의 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시중은행에서 2010년 11월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 및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등을 11~14%의 금리로 5년간 한시적으로 대출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에서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저신용·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휴면예금 및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의 영세상인, 자영업자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등을 2~4.5%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에게 소액대출 형태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 등을 제공,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등의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바퀴드림론, 희망드림대출 등을 통해서도 사전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퀴드림론은 캠코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저소득자 대상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8~13%대의 은행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최근 신용회복기금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되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의 채무감면과 상환방식 조정,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비롯한 기존의 신용회복 정책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직결되는 문제에 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구로 제시하고 있다. 희망드림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리 3%, 최대 7백만 원 한도로 체불임금대부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려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14개 재단)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재단 기본재산을 조성 또는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보증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이행 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서민의 자활능력 제고 절실

현재 서울시의 하우스푸어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까지의 급격한 집값상승 현상이 서민들을 ‘내집마련’ 열풍으로 부채를 안고 집을 구입하였지만 2008년 이후 서울시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렌트푸어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다.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심화되고, 전세가

격 상승세가 지속될수록 서울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바, 서민금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서민금융 방향은 자금지원 측면에서 앞서 본 전국적인 서민금융을 충실히 이용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의 서민금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서민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자활의 수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창업 후 1~2년 내 폐업이 높은 점으로 보아 자활지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소득향상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고용으로 연결될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서민금융 대책이 될 수 있다.

서민층의 자활을 위해서는 서울시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전문 상담사의 체계적인 상담과 채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금융교육이 중요한 바, 서울 각 구청별로 서민 금융교육 강좌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jsbae@si.re.kr



경제불안과 서민금융의 대두

최근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상의 애로 등 이른바 서민금융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서민금융에 관련된 이른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문제가 부각된 배경에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침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을 둔화와 함께 국내경기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서민금융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민금융에 관련된 제반문제는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범

* 저자 경력 및 최근 연구:

- 경제학 박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2010), 서울시 성인지(性認知)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2009),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2009),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2009),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2009) 등.

** '서민'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책적 측면에서도 엄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용어로서의 서민, 즉, 부유층의 반대개념 혹은 소득분위상의 1~2분위 등 저소득층의 의미에 더하여, 경기 위축에 따른 잠재적 부실위험성 및 생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쪽방촌 주민, 영세상인, 노점상 등을 현실적인 서민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 이러한 '서민금융'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한 데에는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자영업자의 몰락, 가계부채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대내적으로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와 고용불안, 소득양극화 등을 야기하며 불법 사금융의 확산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확대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은 대출에 있어 신용등급을 가장 큰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층의 대부분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제도권 내의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담보기반 금융거래 및 직장 등 소득증빙에 따른 신용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정책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햇살론, 미소금융 등 중앙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제도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용등급 및 소득기준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작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사금융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금융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신용불량자가 약 3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39%를 초과하는 불법금리 대부, 불법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서민층의 금융소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서민금융 제도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마이크로크레딧 등 창업자금과 신용등급에 기초한 현행 서민금융상품들은 여신상환능력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으로 사금융이라는 블랙마켓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단기적 처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서민금융의 실태와 문제점

2012년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 및 민간기관들이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기관별 서민금융 관련 수행업무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퀴드림론, 소액대출, 부채증명원 발급,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 및 접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창업, 운영자금 대출 등의 미소금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햇살론, 국민연금공단의 재무상담 및 노후설계 지원,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관련 법률상담,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등이 있다.

이중 실질적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재원지급이라는 제도적 실효성이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의 사업들이 있다.

〈표 1〉 서민금융제도 현황

구분	사업명	출범시기	주요 지원 대상	주요 내용
중앙정부	새 희망홀씨	2010년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생계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햇살론	2010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전환대출
	미소금융	2009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창업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소상공인 소액대출	2006년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바꿔드림론	2008년	금융소외계층	저금리 대출상품으로의 변경 지원
서울시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구, 희망통장)	2009년	저소득 근로자	매월 5~20만원 적금 시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1:1로 추가 적립(매칭펀드 방식)
	서울 마이크로크레딧 (구, 서울희망드림뱅크)	2009년	창업희망자, 차상위계층	1,000~2,000만원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상품
	서울 꿈나래통장	2009년	아동가구	아동 교육자금 마련 목적, 매월 3만원 적금 시 3만원 추가 적립(매칭펀드 방식)

위의 표에서 제시된 서민금융제도들은 출범 이후 2012년 6월까지 총 8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중 가장 대표적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는 공적 서민금융 상품으로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 하에 직접적인 대출자금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은 매칭펀드 방식의 쌍방향적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 및 시차원의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의 활성화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의 2011년 「서민금융 현황 진단 보고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 외환위기 이후 미흡한 구조조정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영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은행은 구조조정의 완료로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업력이 강화된 반면,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조합) 등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이 안정된 2004년 이후에도 퇴출이 지속되는 등 불완전한 구조조정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원인	내용
서민금융기관 영업기반 취약	불완전한 구조조정 상태에서 영업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서민금융의 낮은 수익성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서민금융 회피경향 강화 - 시중은행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주택담보대출과 PB금융 등에 주력 - 저축은행은 고수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위험 대출에 집중
과학적인 경영 능력 미흡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미흡
금융소비자의 외면	건전한 서민들은 가급적 서민금융기관의 이용을 자제하고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와 악성채무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1.

둘째, 연체율이 높다. 높은 연체율과 신용위험은 수익성 하락과 서민금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은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PB금융 등 부유층 시장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서민금융을 자연스레 소홀히 하고 있다. 서민의 금융을 도모해야 할 저축은행 역시 외환위기 이후 영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미흡한 서민금융보다 고수익 부동산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기자본이 취약해지는 등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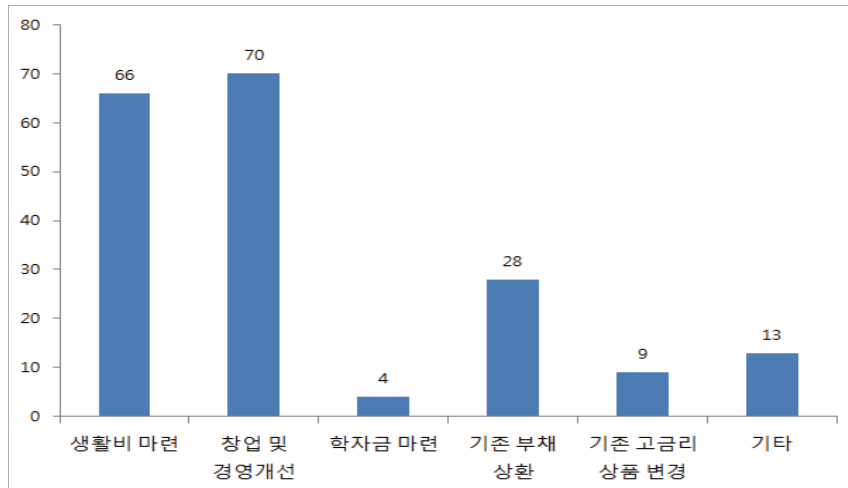
셋째, 무담보 서민금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과학적인 경영능력이 미흡하다. 서민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리스크 관리 등이 절실함에도 일부 대형 저축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기관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서민금융 소비자들이 외면한다. 저신용이지만 상환의지가 높은 서민들은 서민금융기관들의 높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오히려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대출을 희망하는 딜레마에 봉착해있다. 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보다 무려 10%가량 높은 수준이며, 건전한 서민금융고객들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자제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민금융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더불어 서울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정책의 만족도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서민금융에 대한 시민접근성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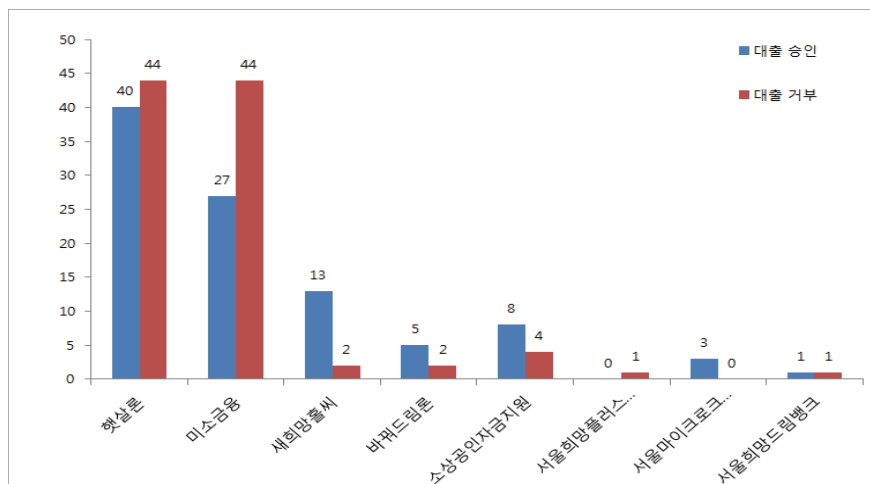
2012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무직자, 노점상인, 전통시장 상인 등 서울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234명에 대하여 사금융 및 서민금융 이용실태 등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 금융소외계층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0.4세로 서울시민 평균연령 38.2세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1인 독거비율이 40.9%,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서울시의 모든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본 조사에서 도출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 이용목적

먼저,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사금융 이용목적은 ‘창업 및 경영개선’과 ‘생활비 마련’ 위주로 나타났고, 대출상품으로는 사금융업체 및 지인으로부터의 대출경험이 약 1/3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정금리인 연 39%를 넘는 대출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7.6%로 조사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불법 사금융 시장의 고금리에 노출된 서민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 이용결과

한편, 서민금융 이용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꿈나래 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상품의 이용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1%에 불과하였으며, 서민층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66%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는 서민금융에 대한 시민접근 용이성이 낮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원자격 및 요건에 대해 서민들은 대체로 어려운 수준으로 인식(79.0%)하고 있으며, 신청절차 역시 복잡하다는 응답(82.0%)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출신청에서도 대출거부 비율이 54.6%에 달하는 등 대체로 서울시 서민계층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과 정책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작 서민금융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 용이성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서민금융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민중심의 적용 대안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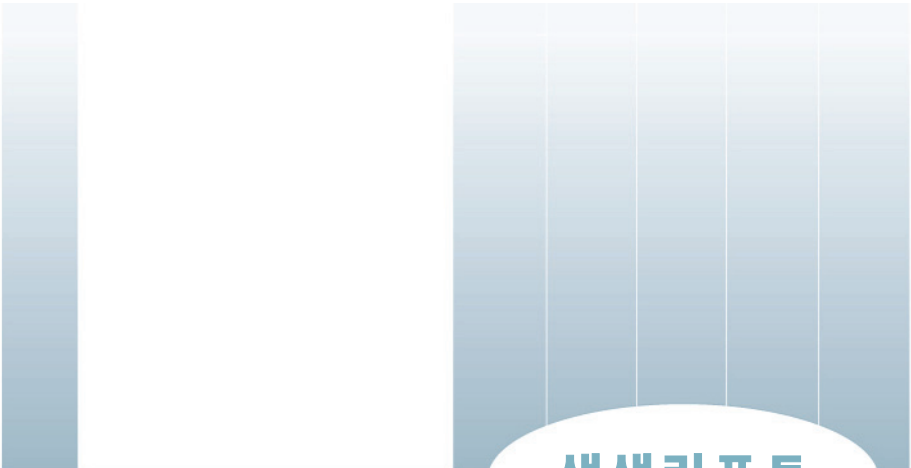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성장일변도의 경제구조하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악화는 서민금융기관임을 자부해오던 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져와 저소득 서민들이 제도권 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였다. 은행권의 리스크관리와 경기불황은 서민금융제도의 운영에서도 ‘신용도와 소득’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으며, 저소득층의 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서민금융의 제도설계는 금융소외계층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증조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이 지나친 대출조건과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적 효용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동안, 사금융 시장이 음지에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와 불법 추심행위를 알면서도 생활고에 허덕이는 금융소외계층이 불법 사금융시장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제도 금융권이 이들 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서민금융 정책에 있어 시민들의 체감과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시각에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단지 운영을 위한 제도 도입이 아닌, 실제로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중심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 서민금융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서민중심의 적용 대안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밀착형 공제협동조합 방식 등 다양한 적용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출과 대부의 관행을 지역밀착형 자조기반의 관계형 금융이라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정립하여 공제협동조합 방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서민금융의 자격요건에서 신용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서민에 대한 신용분석은 정량적 분석보다 정성적 분석이 중요하며, 금융소외계층과의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획득한 비공식적 정보에 기반을 두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홍보를 통해 소외받는 서민금융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가 요구된다. 서민금융에 대한 일반홍보가 아닌 계층별, 직업별 특화 홍보전략에 관심을 갖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불황과 저금리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금융 경영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의 재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매칭펀드 및 소셜금융믹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재원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충분한 공급기능이 확립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금융조류가 규제완화와 무한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공정경쟁 등 상생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한국의 금융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손상호, 2013). 서민금융제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자활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토양과 자양분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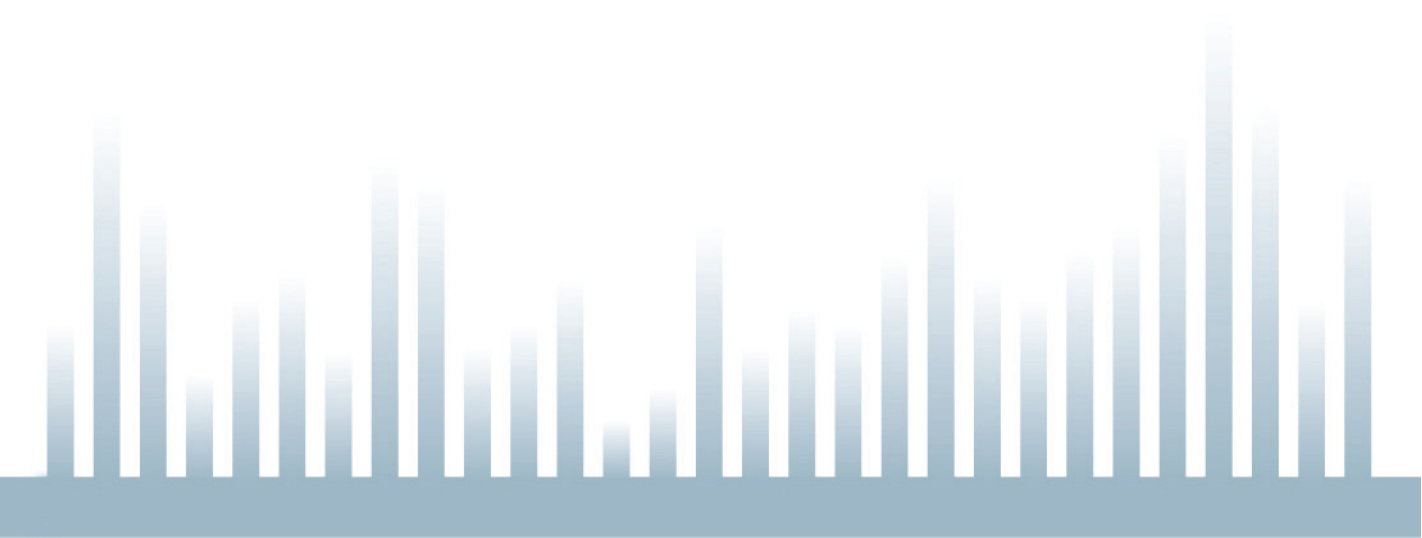


생생리포트

■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I. 한국 관광 1번지, 명동거리

II. 화장품 매출액 1순위 자치구, 중구

III.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IV. 글을 마치며

부록.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통계표

*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I. 한국 관광 1번지, 명동거리

서울시에는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 종로 인사동 문화거리, 홍대거리, 이태원거리와 같이 ‘길’ 과 ‘거리’ 로 불리는 명소들이 있다. 그 중 명동거리는 서울의 특화거리 중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꼽힌다. 역사적으로 명동은 조선시대의 주택지에서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 때 상업지역으로 발전하고 광복을 기점으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의류, 제화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구로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찾는 쇼핑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서울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던 명동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과 같은 새로운 패션 중심지들이 등장하면서 잠시 특징이 퇴색되었었다. 그러나 현재 ‘화장품 거리’ 라고 불릴 정도로 화장품 사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명소이자 쇼핑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명동거리의 중심 산업인 화장품 사업체들의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을 비교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서울의 상업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온 명동거리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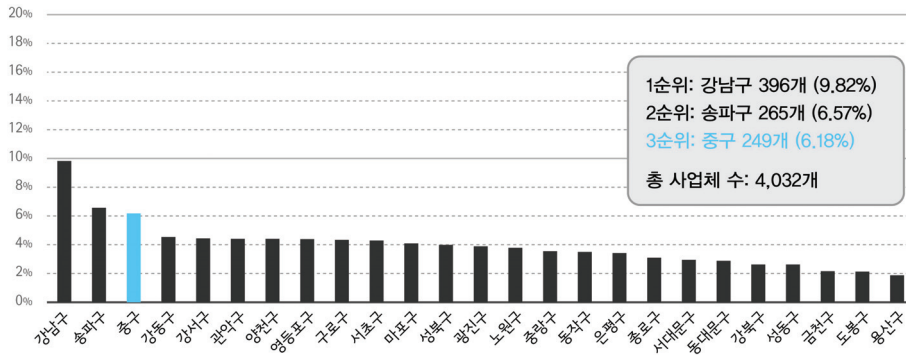
II.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1순위 자치구, 중구

1.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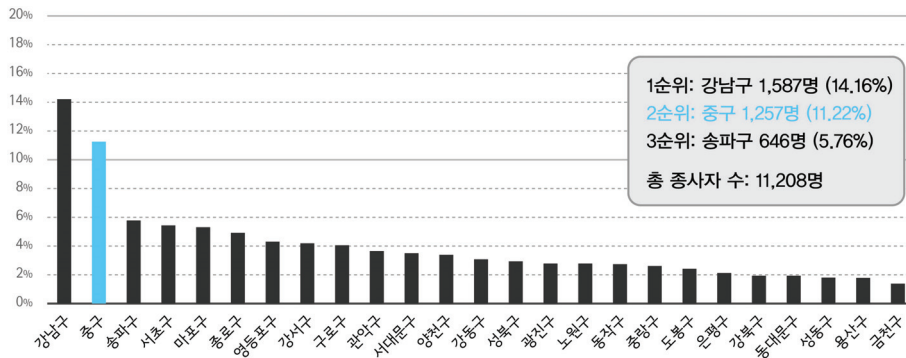
2011년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총 사업체 수는 4,032개이다. [그림1]을 보면 1순위는 강남구가 396개로 전체의 9.82%, 2순위는 송파구가 265개로 6.57%, 3순위는 중구가 249개로 6.18%를 차지한다. 23순위인 송파구와 중구의 사업체 수는 16개 차이로 적은 차이를 보인다. 3순위까지 제외한 자치구들은 사업체 수의 비율이 비슷한 편이다.

2.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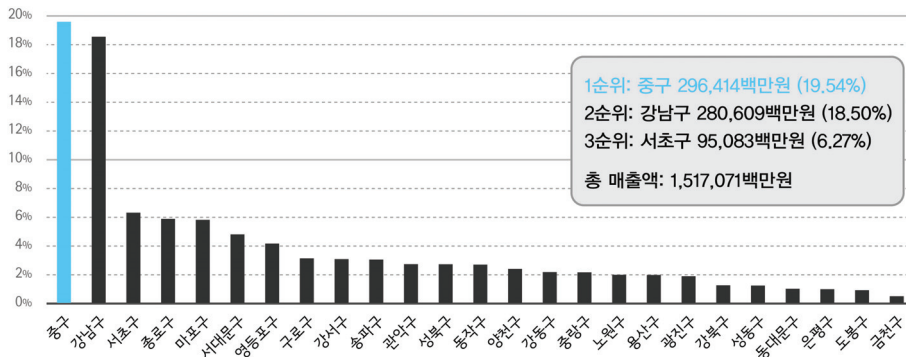
2011년 서울시에서 화장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11,208명이다. [그림2]를 보면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1순위는 강남구로 전체의 14.16%인 1,587명이 종사하고 있다. 2순위는 중구가 1,257명으로 11.22%, 3순위는 송파구가 646명으로 5.76%를 차지한다. 12순위인 강남구와 중구는 330명으로 적은 차이를 보이는 반면, 23순위인 중구와 송파구는 2배 가까이 되는 611명 차이로 큰 격차를 보인다.



[그림 1]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수의 비율



[그림 2]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종사자 수의 비율



[그림 3]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의 비율

3.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2011년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의 전체 매출액은 1,517,071백만원이다. [그림3]을 보면 1순위는 중구로 전체 매출액의 19.54%인 296,414백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순위는 강남구로 18.50%인 280,609백만원, 3순위는 서초구로 6.27%인 95,083백만원이다. 12순위 매출액을 합치면 전체의 38.04%로 화장품 소매업 중심지는 중구와 강남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의 비교를 통한 중구의 화장품 소매업 현황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수는 강남구가 396개로 1순위이고 중구는 249개로 3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수는 중구와 강남구가 147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구의 종사자 수는 자치구 중 2순위인 1,257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1.22%를 차지하고 1순위인 강남구와 330명이라는 적은 차이를 보인다. 매출액은 중구가 296,414백만원으로 1순위이며 2순위 강남구의 매출액인 280,609백만원 보다 15,805백만원 많다. 사업체 수는 중구가 3순위이지만 종사자 수가 크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중구에서의 화장품 산업이 가장 활발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관찰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가 소규모 화장품 판매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I. 중구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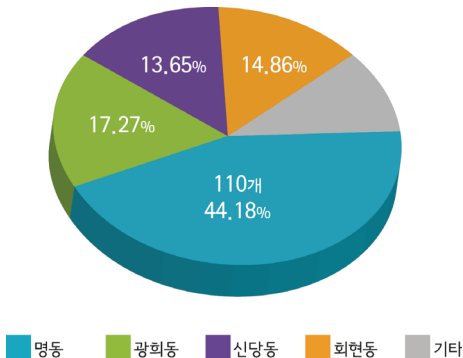
1. 중구 명동의 화장품 사업체 수와 매출액

2011년 사업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중구의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구 안에서도 10개의 행정구역 중 명동의 화장품 소매업 산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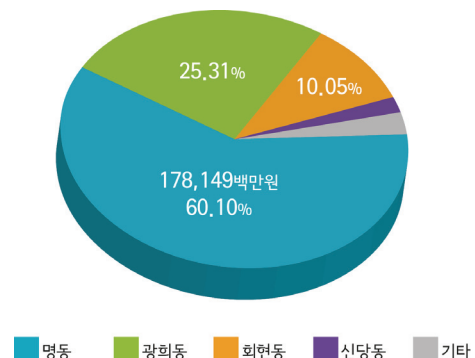
명동의 사업체 수는 110개로 중구의 전체 사업체 수 249개의 44.18%를 차지한다. 압도적으로 많은 화장품 가게들이 명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순위는 광희동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17.27%인 43개, 3순위는 신당동으로 14.86%인 37개가 있다.

매출액도 명동이 178,149백만원으로 전체 중구의 매출액의 대부분인 60.10%를 차지한다. 2순위는 광희동으로 전체 매출액의 25.31%인 75,014백만원, 3순위는 회현동으로

10.05%인 29,789백만원이다. 위치적으로 명동의 동쪽은 광희동, 서쪽은 회현동인 것을 보았을 때 명동 화장품 소규모 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집결되어 있는 명동, 광희동, 회현동의 매출액을 합치면 전체의 95.46%로 중구에서 발생하는 화장품 소매업 산업은 모두 명동을 기점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중구 동별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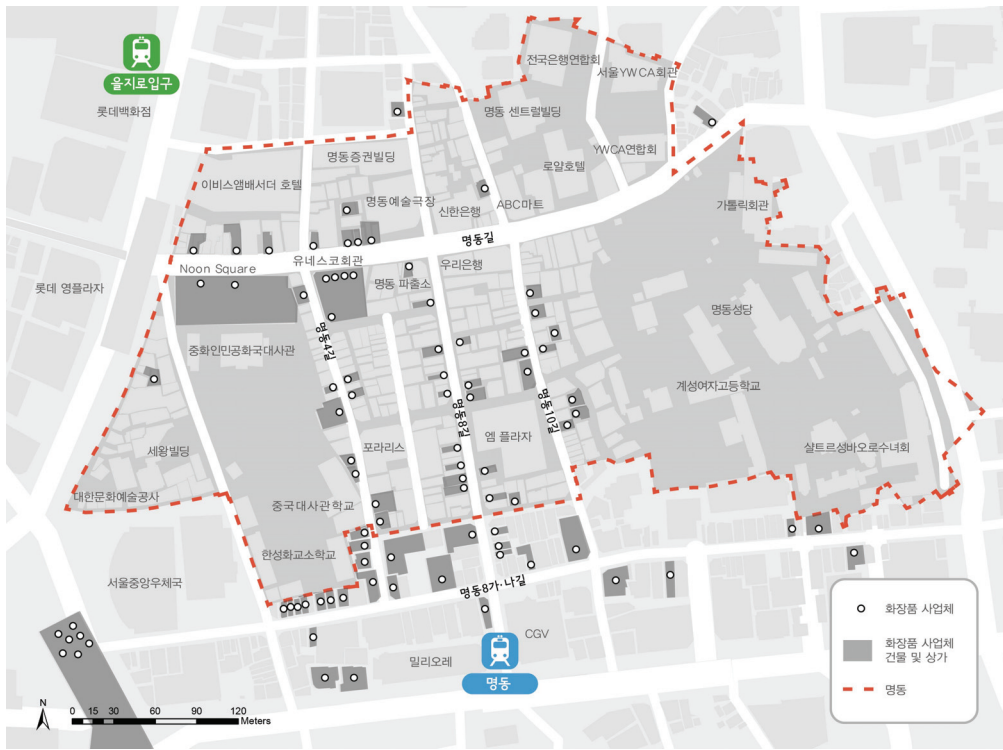
[그림 5] 중구 동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비율

2. 명동 화장품 사업체들의 위치

자치구 중 매출액 1순위 중구의 행정구역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소규모 산업의 중심지는 명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동 화장품 사업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길을 화장품거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림6]에서 빨간 점 선 안에 속한 구역이 명동 1동, 2동이지만 대체로 명동이라고 불리는 상권은 을지로입구역에서부터 명동역까지를 포함하는 범위이다. 명동의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에 위치해 있다. 명동의 중심 길인 명동길과 명동 8길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조금 더 좁은 길인 명동 4길과 10길에도 화장품 사업체들이 많다. 을지로입구역 근방의 화장품 사업체 밀집 지역은 롯데백화점과 가까이 위치해있으며, 명동역과 가까운 사업체들은 밀리오레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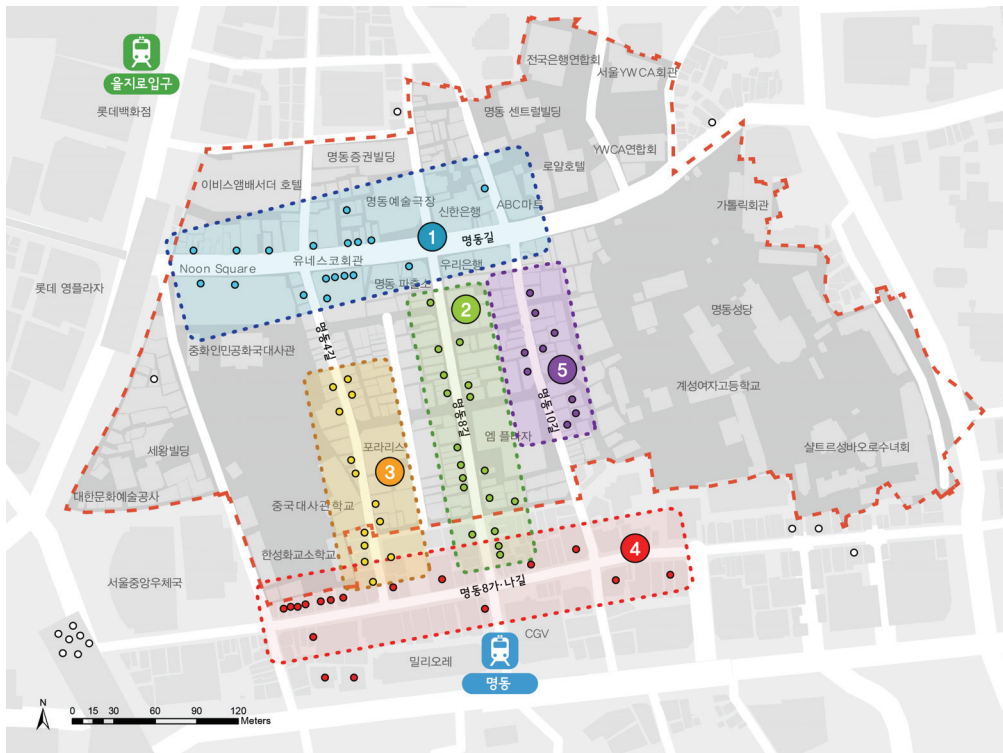
3. 명동의 화장품거리와 매출액

명동에서 화장품 사업체들이 밀집된 위치를 분석하면 5가지의 거리로 나눌 수 있다. 명동길, 명동4길, 명동8길, 명동10길, 명동8가나길이다. 이 길들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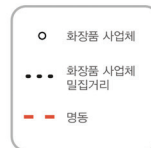
[그림 6] 명동 화장품 사업체 위치

명동길이 1순위로 53,879백만원이다. 명동길은 명동성당과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을 연결하는 길로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오히려 명동의 중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명동8길보다 높은 매출액이다. 2순위는 명동8길로 48,379백만원이다. 명동8길은 명동역과 명동길을 이어주는 중요한 명동거리의 중심 길이다. 명동8길은 화장품 사업체뿐 아니라 의류사업체들도 밀집되어 있다. 3순위는 명동4길로 30,787백만원이다. 명동4길은 좁은 보행자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으로 관찰되었으며 작은 화장품 사업체들과 의류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아마도 롯데백화점에서 나온 유동인구가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들어는 동선을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상해본다. 4순위는 23,249백만원으로 명동역과 가까운 명동8가나길이다. 명동역과 가까워서 매출액이 클 것 같지만 오히려 을지로입구역과 가까운 명동길이 현저히 큰 액수를 보인다. 5순위는 명동10길로 13,383백만원이다. 명동10길도 명동4길과 같이 좁은 골목길로 주로 음식점들이 많은 편이며 음식점들 사이에 화장품 사업체들이 위치해있다.



화장품 사업체 밀집거리와 매출액

1 53,879백만원	2 48,379백만원	3 30,787백만원
4 23,249백만원	5 13,383백만원	



[그림 7] 명동 화장품거리의 구분과 매출액



[그림 8] 명동길의 현재 모습과 화장품 사업체



[그림 9] 명동10길의 현재 모습과 화장품 사업체



[그림 10] 명동4길의 현재 모습과 화장품 사업체



[그림 11] 명동10길 현재 모습과 화장품 사업체

IV. 글을 마치며

2011년 사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구의 화장품 소규모 사업체 매출액은 1순위로 296,414백만원, 사업체 수는 3순위로 249개, 종사자 수는 2순위로 1,257명이다. 사업체 수는 강남구와 송파구에 비해 적지만 매출액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 자치구 중 화장품 산업은 중구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구에 속한 행정구역 중 명동 매출액이 전체의 60.10%인 178,149백만원이며 사업체 또한 전체개수의 44.18%인 110개가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 산업은 명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장품거리라고 불릴만큼 큰 규모이다. 명동 화장품 가게들의 위치를 분석하면 을지로입구역과 명동성당을 이어주는 명동길, 명동역과 명동길을 이어주는 명동8길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특히 명동의 거리 중 명동길에 위치한 사업체 매출액의 총 액수가 53,879백만원으로 가장 높다.

역사적으로 서울의 상업중심지였던 명동거리는 예전에는 의류상업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화장품거리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 화장품 사업체 현장답사를 하면서 호객행위를 일 본어, 중국어와 같은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화장품 가게에서 구경하고 구입하는 고객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보였다. 이처럼 명동거리는 옛 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쇼핑중심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관광객 고객층이 많이 늘어났으며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그 모습이 변했다. 역사적, 상업적, 장소적 스토리가 있는 명동거리가 서울 상업지구로서의 역할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다.

부록: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통계표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수

단위: 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사업체 수	396	183	106	179	178	157	175	87
비율	9.82%	4.54%	2.63%	4.44%	4.41%	3.89%	4.34%	2.16%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153	86	116	141	165	119	173	106	161
3.79%	2.13%	2.88%	3.50%	4.09%	2.95%	4.29%	2.63%	3.99%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전체
265	178	177	76	138	125	249	143	4,032
6.57%	4.41%	4.39%	1.88%	3.42%	3.10%	6.18%	3.55%	100.00%

자료: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종사자 수

단위: 명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종사자 수	1,587	344	216	469	408	311	453	155
비율	14.16%	3.07%	1.93%	4.18%	3.64%	2.77%	4.04%	1.38%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311	270	216	306	593	391	607	202	328
2.77%	2.41%	1.93%	2.73%	5.29%	3.49%	5.42%	1.80%	2.93%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전체
646	379	481	200	238	549	1,257	291	11,208
5.76%	3.38%	4.29%	1.78%	2.12%	4.90%	11.22%	2.60%	100.00%

자료: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단위: 백만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자치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매출액	296,414	280,609	95,083	88,558	87,574	72,206	62,429	46,823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	17순위
강서구	송파구	관악구	성북구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46,131	45,676	40,771	40,632	40,303	35,797	32,409	32,097	29,588
18순위	19순위	20순위	21순위	22순위	23순위	24순위	25순위	전체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서울시
29,475	28,126	18,571	18,244	14,809	14,444	13,391	6,911	1,517,071

자료: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표 4> 중구 행정구역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

단위: 백만원, 개

행정구역명	매출액	비율	사업체 수	비율
명동	178,149	60.10%	110	44.18%
광희동	75,014	25.31%	43	17.27%
회현동	29,789	10.05%	34	13.65%
신당동	5,689	1.92%	37	14.86%
소공동	3,631	1.22%	9	3.61%
필동	2,076	0.70%	3	1.20%
장충동	1,641	0.55%	3	1.20%
을지로동	265	0.09%	5	2.01%
황학동	153	0.05%	3	1.20%
충림동	7	0.00%	2	0.80%
합계	296,414	100.00%	249	100.00%

자료: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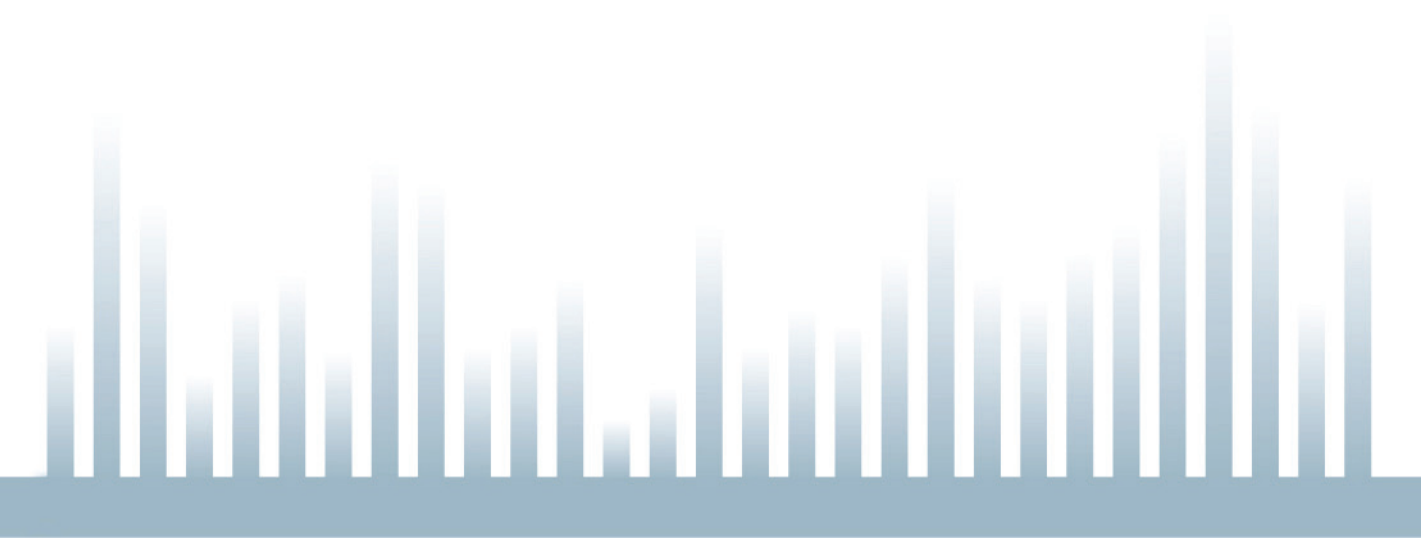
-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울시
-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통계청



인포그래픽스

■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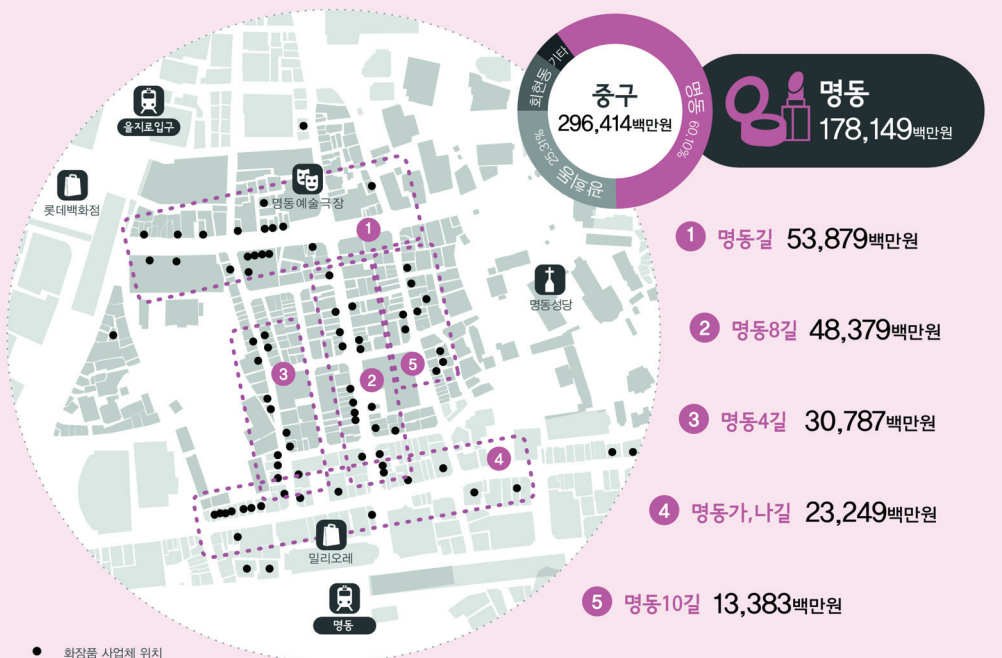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1순위, 중구 명동거리

2011년 자료 기준



2011년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 2011년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1순위 자치구는 중구 296,414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9.54% 차지

- 다음으로 강남구 280,609백만원(18.50%), 서초구 95,083백만원(6.27%), 종로구 88,558백만원(5.84%), 마포구 87,574백만원(5.77%) 순
- 중구와 강남구 매출액 합은 서울시 전체의 38.04%를 차지하며, 이 두 자치구가 화장품 소매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 2011년 중구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1순위 행정구역은 명동 178,149백만원으로 중구 매출액의 60.10% 차지

- 다음으로 광희동 75,014백만원(25.31%), 회현동 29,789백만원(10.05%), 신당동 5,689백만원(1.92%), 소공동 3,631백만원(1.22%) 순
- 명동을 중심으로 동,서쪽은 광희동 회현동이며, 이 세 행정구역의 매출액 합은 중구 전체 매출액의 95.46%를 차지함
- 명동이 화장품 소매업 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2011년 명동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들이 위치한 거리 중 매출액 1순위는 53,879백만원으로 명동길

- 다음으로 명동8길 48,379백만원, 명동4길 30,787백만원, 명동가나길 23,249백만원, 명동10길 13,383백만원 순
- 명동의 화장품 소매업 사업체 위치를 관찰했을 때 주로 길가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음

자료: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울시
2011년 사업체조사집계자료, 통계청

〈표 1〉 2011년 서울 구별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2011 매출액	비율
중구	296,414	19.54%
강남구	280,609	18.50%
서초구	95,083	6.27%
종로구	88,558	5.84%
마포구	87,574	5.77%
서대문구	72,206	4.76%
영등포구	62,429	4.12%
구로구	46,823	3.09%
강서구	46,131	3.04%
송파구	45,676	3.01%
관악구	40,771	2.69%
성북구	40,632	2.68%
동작구	40,303	2.66%
양천구	35,797	2.36%
강동구	32,409	2.14%
중랑구	32,097	2.12%
노원구	29,588	1.95%
용산구	29,475	1.94%
광진구	28,126	1.85%
강북구	18,571	1.22%
성동구	18,244	1.20%
동대문구	14,809	0.98%
은평구	14,444	0.95%
도봉구	13,391	0.88%
금천구	6,911	0.46%
서울시	1,517,071	100.00%

〈표 2〉 2011년 중구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단위 : 백만원)

행정구역	2011 매출액	비율
명동	178,149	60.10%
광희동	75,014	25.31%
회현동	29,789	10.05%
신당동	5,689	1.92%
소공동	3,631	1.22%
필동	2,076	0.70%
장충동	1,641	0.55%
을지로동	265	0.09%
황학동	153	0.05%
중림동	7	0.00%
합계	296,414	100.00%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소비

서울의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로 지난달 보였던 큰 감소세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157억원으로 전국(2조2,546억원)의 45.1%,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981억원으로 전국(3조6,994억원)의 2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한 대형마트가 1위를 차지했다.

고용

서울의 2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 남·녀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하락, 실업률이 하락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3개월 연속 감소폭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세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물가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으로 5개월 연속 물가지수 증감률의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1.2%,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3.6% 상승하며 평소보다 작은 상승폭을 보였다. 신선식품은 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 등과 같은 대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1.4%p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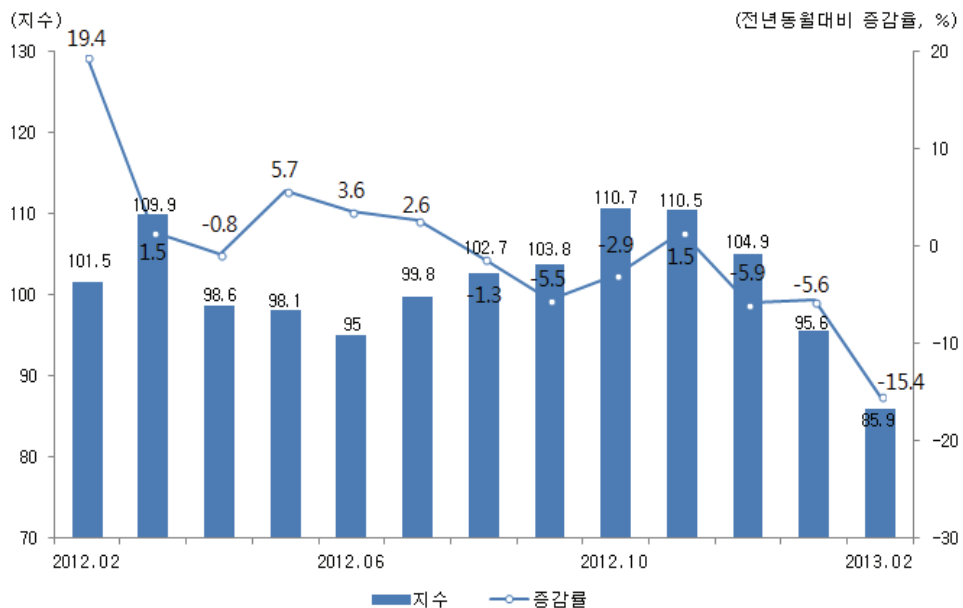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6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전세가격은 경기부진으로 전세 재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봄 이사철 이동수요도 증가하며, 하락세를 지속하는 매매와는 달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지역 특히 강남구와 금천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 생 · 산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 마이너스 성장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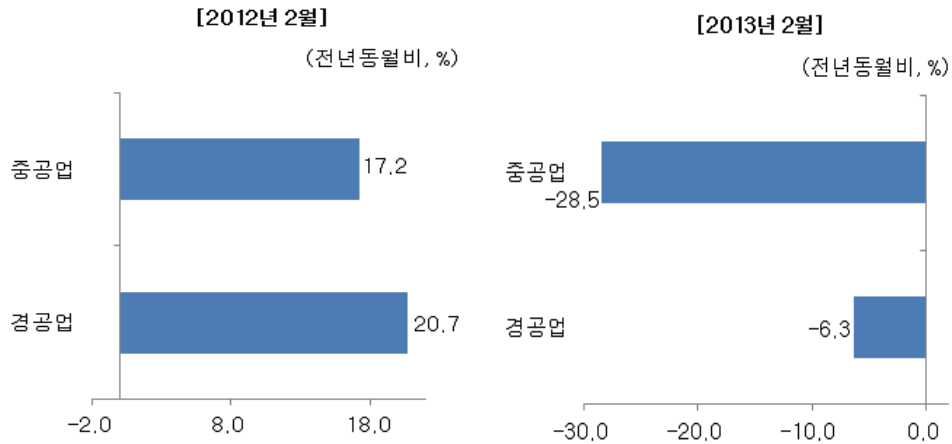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 2012년 2월에 비해 큰 폭 하락세

- 서울의 2013년 2월 산업생산지수 85.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5.4%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8.5% 감소, 경공업부문은 6.3%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무 및 플라스틱(23.6%), 섬유제품(13.5%), 종이제품(12.1%) 증가, 의료정밀과학(-38.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7.6%), 기계장비(-36.3%) 각각 감소
-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산업생산지수 값을 기록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은 96.0(201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
- 제조업 생산은 95.1(2010=100)이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료정밀광학(1.0%), 화학제품(0.3%)은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20.7%), 자동차(-16.5%) 등에서 각각 감소하여 총 9.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보건·사회복지(5.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4.7%), 금융·보험(-1.4%) 등이 감소하여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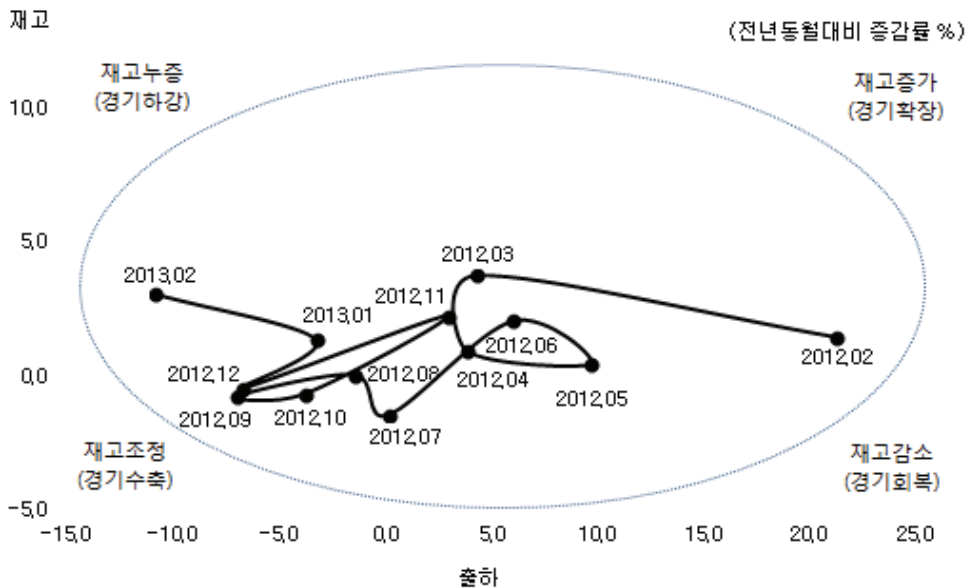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2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2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2월 재고지수는 104.1(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서울의 2월 출하지수는 92.3(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중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판매액 대형마트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138억원으로 전국(5조9,540억원)의 35.5%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57억원으로 전국(2조2,546억원)의 45.1%,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981억원으로 전국(3조6,994억원)의 29.7%를 차지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대형마트 판매는 3.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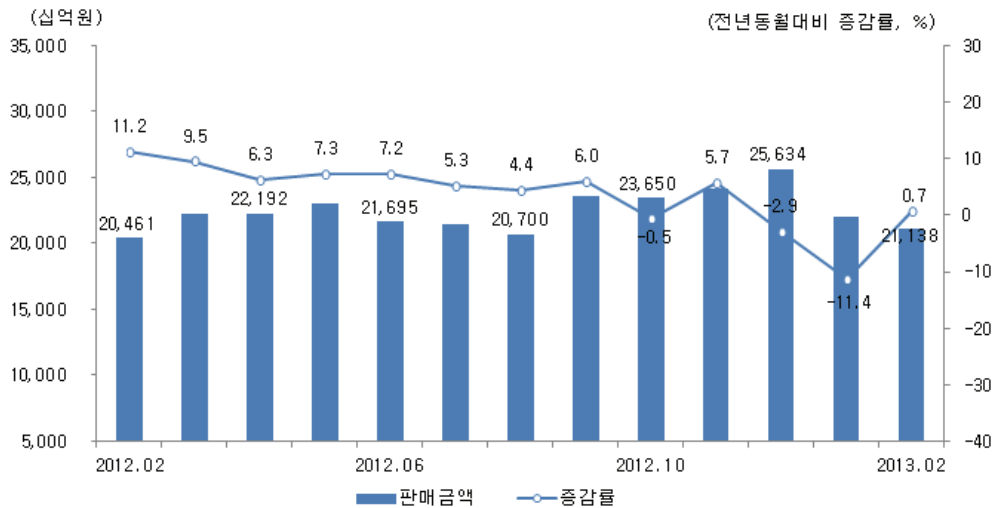
■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6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대형마트는 8.2% 각각 증가

■ 전국의 2월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대형마트(8.2%)가 1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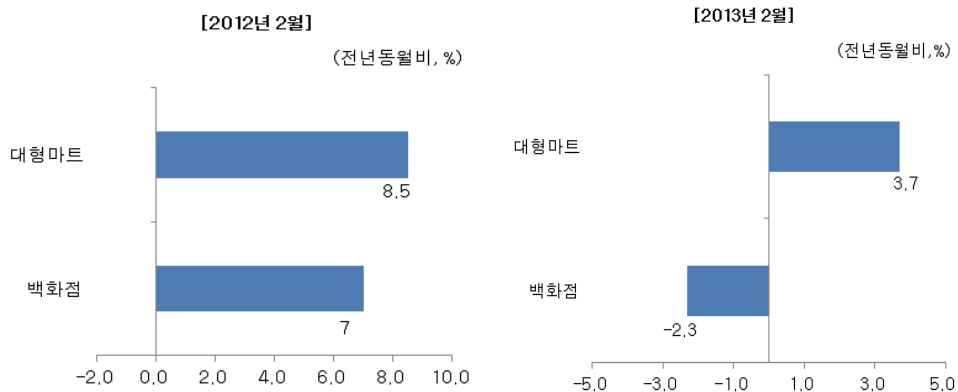
- 전국의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27조 3,7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전국의 2월 소매판매액지수를 재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승용차 등 내구재(-1.7%)는 감소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4%),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2.6%)가 늘어 1.8% 증가
-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증가, 승용차·연료소매점, 무점포소매*는 감소

1)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 소매점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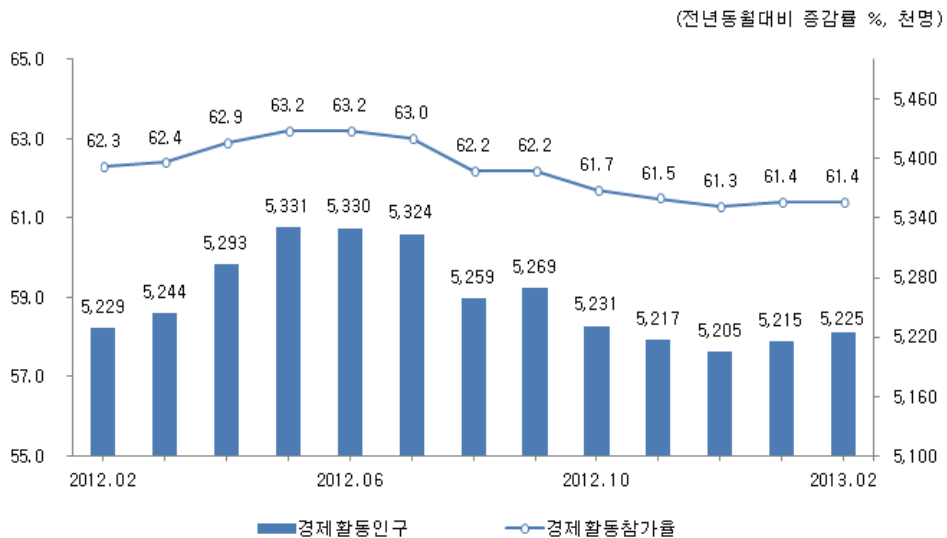
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2개월 연속 61.4%로 보합세

■ 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서울의 2월 15세 이상 인구는 850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1천명(1.3%)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2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9%)이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8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6천명(3.6%)이 증가

■ 전국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와 보합세

- 전국의 2월 15세 이상 인구는 4,192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만7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497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8천명(0.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67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9천명(0.4%)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9만8천명으로 8만9천명(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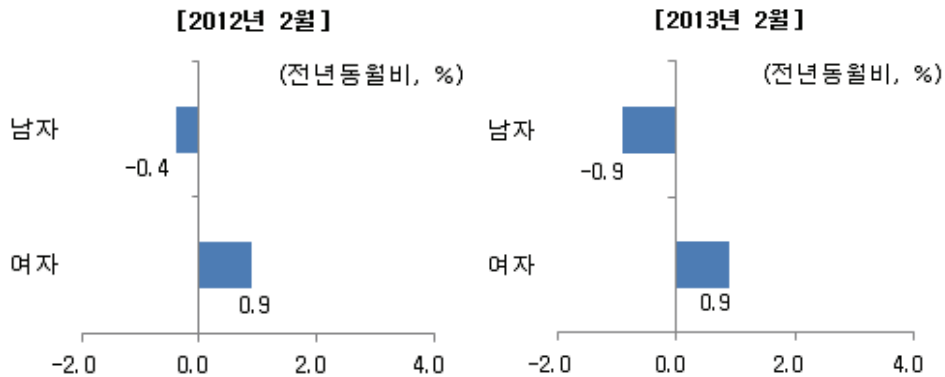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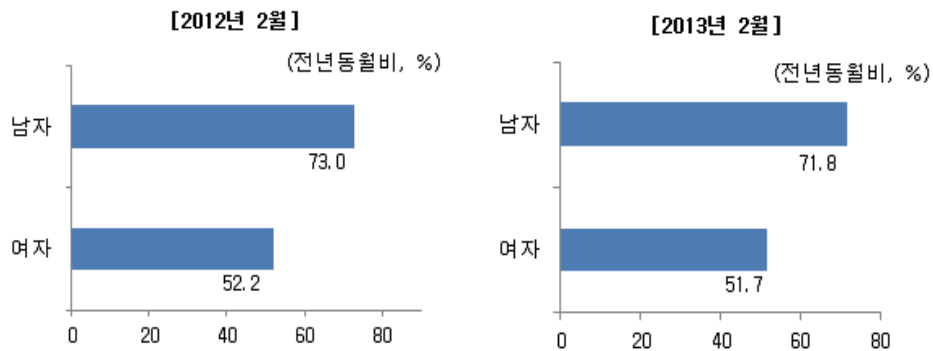
■ 서울의 2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인구 남자 하락, 여자 증가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4만2천명, 여자는 22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9%감소, 여자는 0.9%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1.8%, 여자는 51.7%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1.2p, 0.5%p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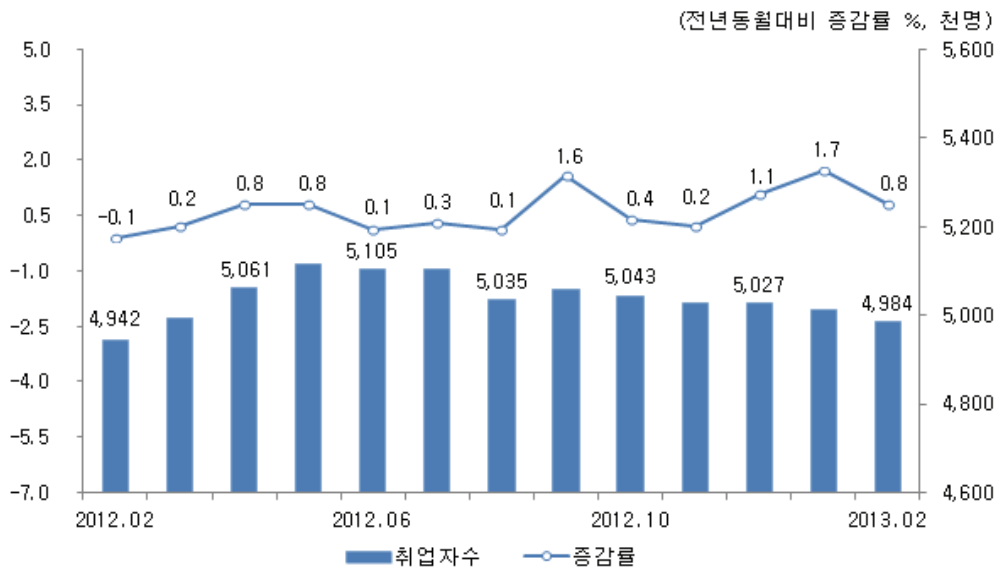
서울의 2월 취업자 수는 여성 취업자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서울의 2월 취업자는 49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2천명(0.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9만8천명, 여자는 218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천명으로 보합, 여자는 4만1천명(1.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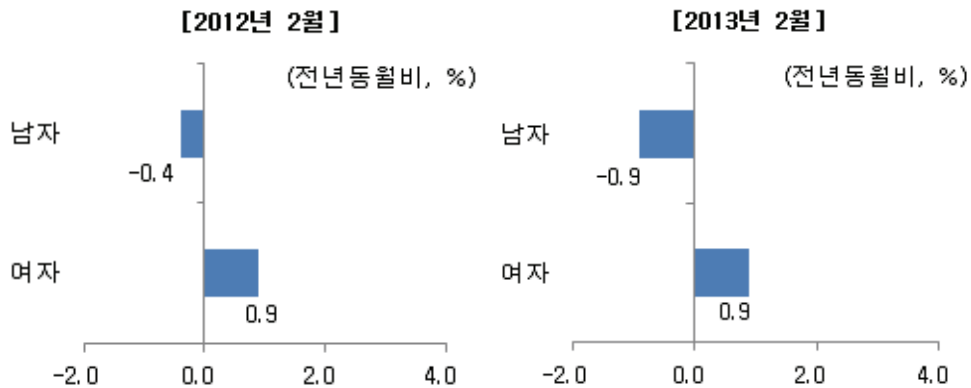
■ 전국의 2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2월 취업자는 2,39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1천명(0.8%)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0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7천명(0.3%), 여자는 991만9천명으로 15만4천명(1.6%)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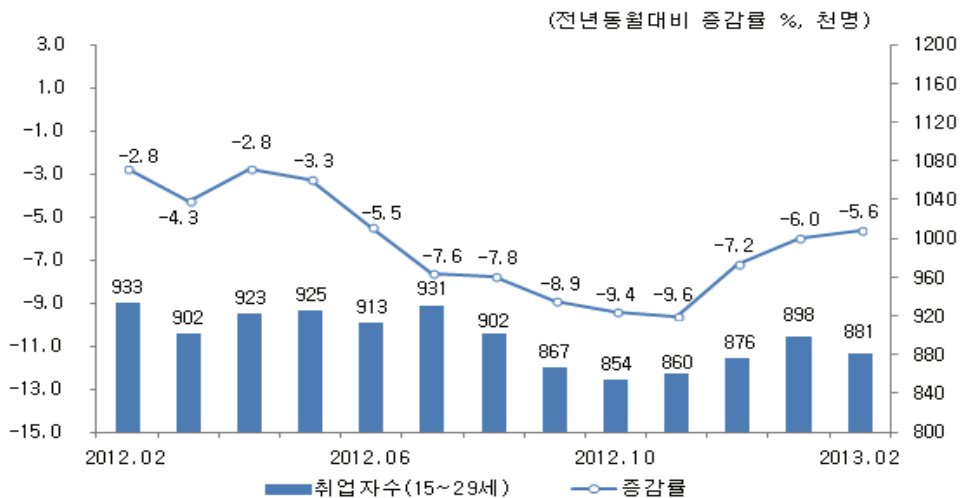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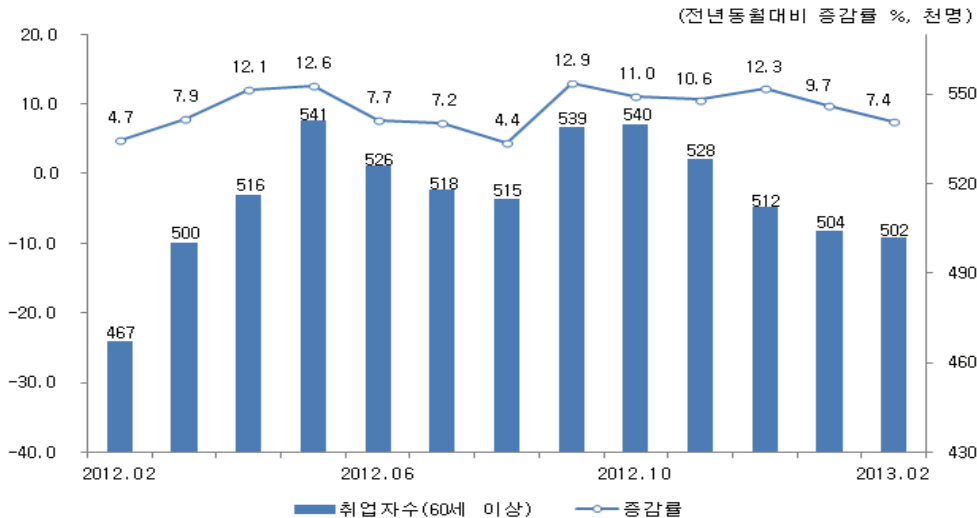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 서울의 2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2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폭 감소
 - 서울의 2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4%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32.7%), 제조업 6만1천명(-12.0%), 건설업 2만3천명(-6.6%) 등은 각각 감소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1만5천명(5.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5천명(1.8%)은 각각 증가

■ 직업별로 사무, 관리자·전문가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4만5천명(4.4%), 관리자·전문가 4만9천명(3.5%)이 각각 증가
-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32.8%),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만명(-3.7%), 서비스판매종사자 1천명(-0.1%)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 상용·일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3천명(-4.5%), 무급가족종사자는 9천명(-5.7%), 임시근로자는 3만2천명(-2.8%)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2만명(5.2%), 일용근로자는 6천명(1.6%)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3만2천명(-2.8%)이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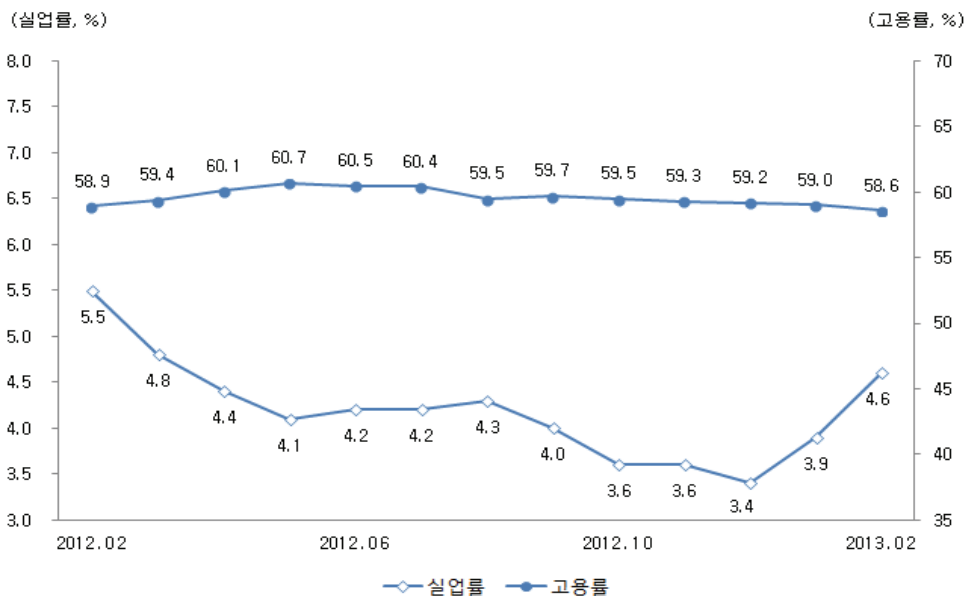
서울의 2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하락세

■ 서울의 2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2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3%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 여자는 49.5%로 보합
- 2013년 2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7.2%)에 비해 1.4%p 높은 수준

■ 서울의 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2월 실업자는 24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6천명(-16.0%)이 감소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대비 0.8%p, 여자는 4.3%로 0.9%p 각각 하락
- 2013년 2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4.0%)에 비하여 0.6%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하락세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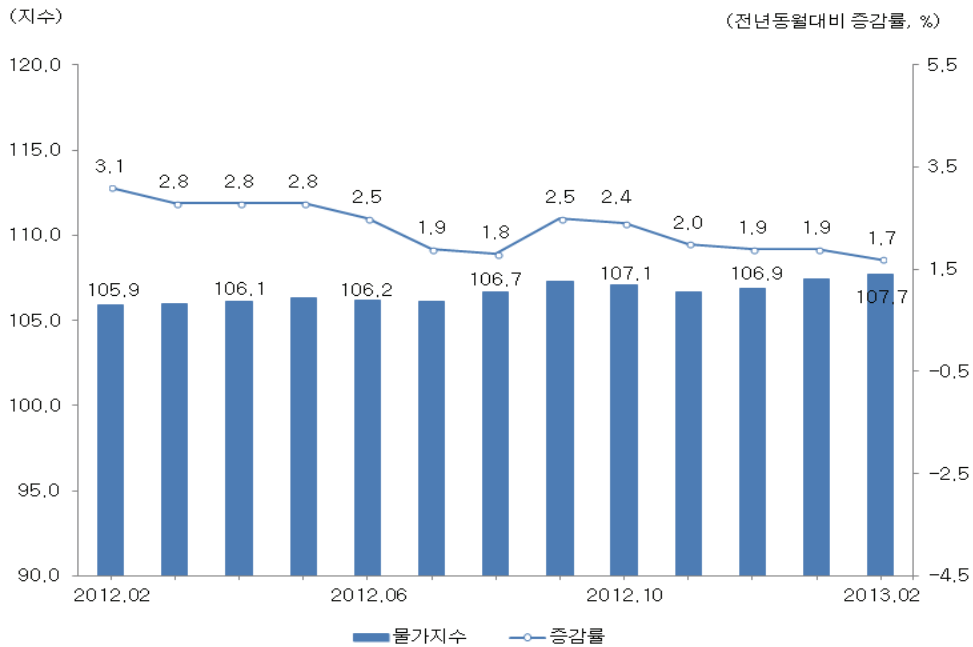
- 2013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전기·수도·가스(4.2%) 등 모두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1.2%, 공업제품은 1.0%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그 중 집세는 3.1%, 공공서비스 2.3%, 개인서비스 1.0% 각각 상승

■ 서울의 2월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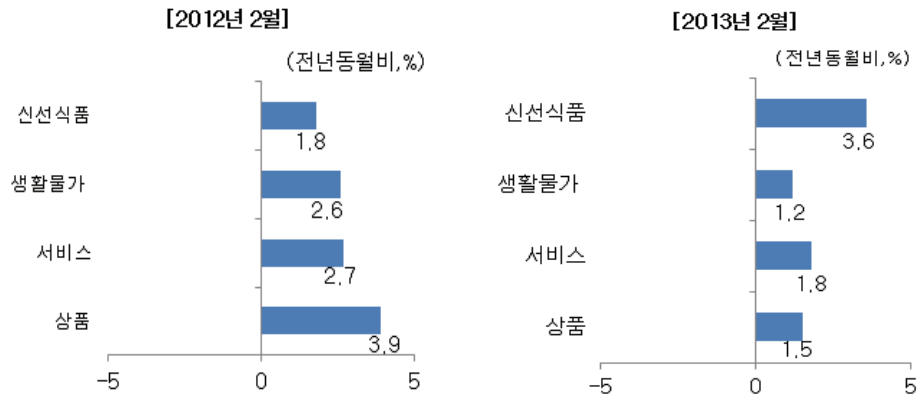
■ 전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충북은 0.5% 상승,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도는 0.4% 상승, 나머지 10개 시도는 0.2~0.3%씩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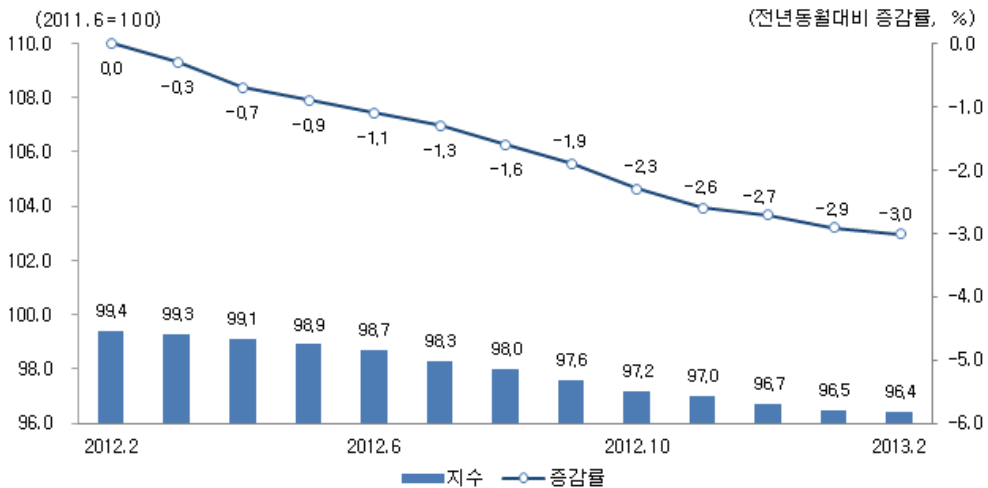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3%, 0.1% 하락

■ 전국의 2월 주택매매가격 매수심리 위축세가 지속되며 8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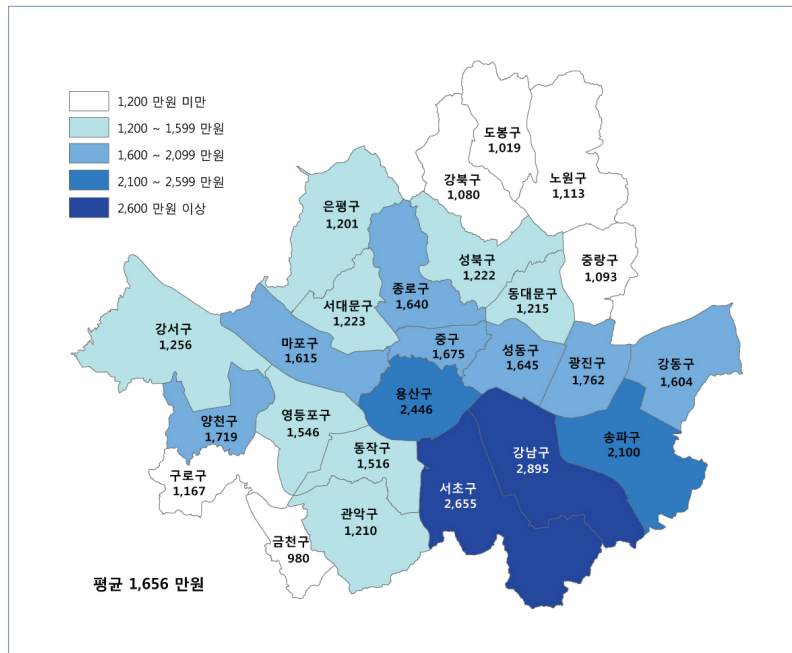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새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확대와 장기적 매매시장 침체로 전월대비 0.1% 하락
- 수도권은 매매거래 부진이 심화되면서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2%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전월대비 0.1% 상승,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보합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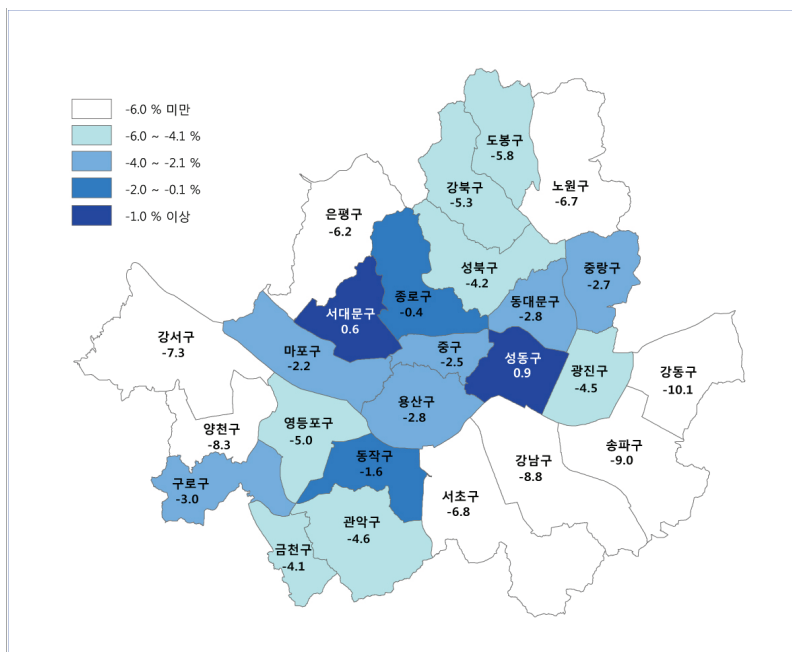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원구, 도봉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노원구는 주거기반시설이 보완된 별내신도시로의 이동을 위해 기존 단지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가 전무하여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3% 하락
 - 도봉구는 매물 물량이 적체되고 급매물 조차 거래가 한산해지며 전월대비 0.3% 하락
- **강남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금천구, 서초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금천구는 거래가 전무하여 급매물 해소에도 어려움을 보이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5% 하락
 - 서초구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기대감과 재건축 사업의 진행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월대비 0.4% 하락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55.9만원으로 전월대비(1661.4만원)대비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13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2,895만원), 서초구(2,655만원), 용산구(2,446만원), 송파구(2,100만원), 광진구(1,762만원), 양천구(1,71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80만원), 도봉구(1,019만원), 강북구(1,080만원), 중랑구(1,09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2월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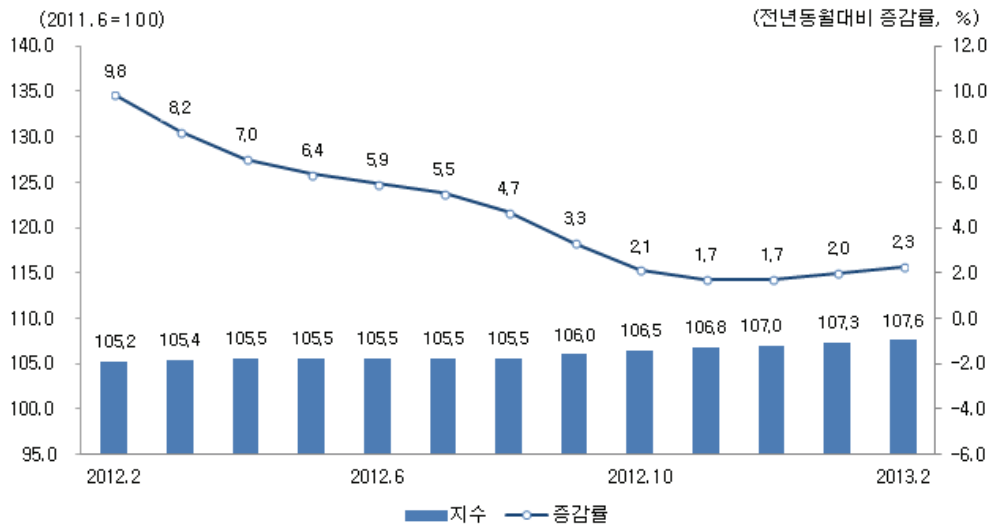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6개월 연속 상승

■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3% 상승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1%, 아파트는 0.4% 상승

■ 전국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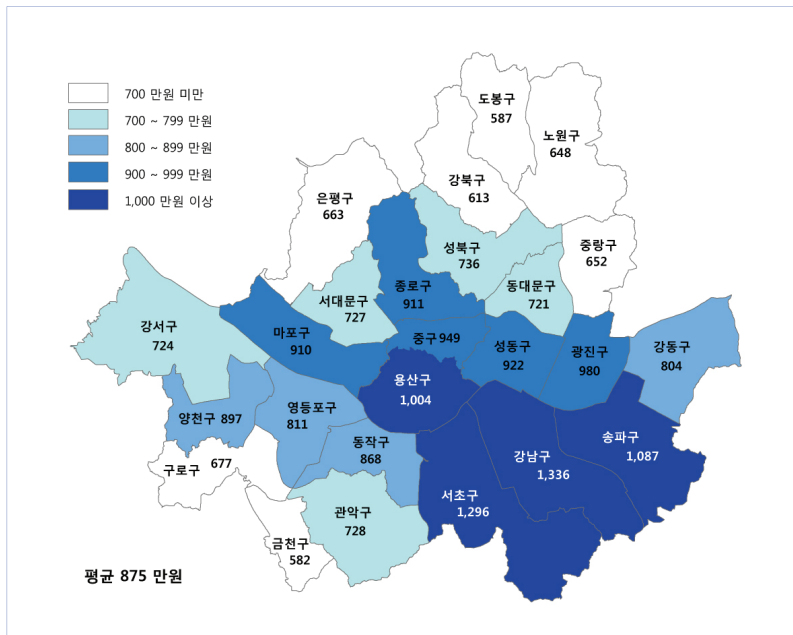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경기부진으로 전세 재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봄 이사철 이동수요도 증가하며, 하락세를 지속하는 매매와는 달리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대비 0.3% 상승
-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기타지방은 0.2%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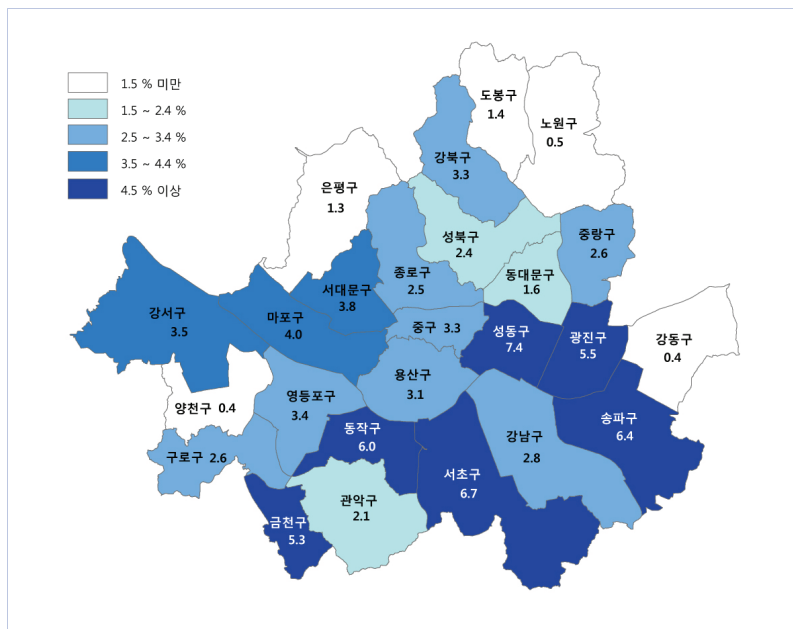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대문구, 도봉구 순으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2% 상승
 - 서대문구는 도심업무지역과의 접근 편리성으로 명동, 광화문 및 상암 DMC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및 신혼부부 수요와 돈의문뉴타운 이주수요, 인근 학교의 학군수요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6% 상승
- 강남지역 역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였고 특히 강남구와 금천구가 다른 지역 대비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4% 상승
 - 강남구는 봄 이사철 수요와 우수학군으로 배정받기 위한 학군수요, 인근 개나리 6차 재건축 이주수요, 신혼부부 수요 등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며 전월대비 0.9% 상승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74.7만원으로 전월대비(869.9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1,336만원), 서초구(1,296만원), 송파구(1,087만원), 용산구(1,004만원), 광진구(980만원), 중구(94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82만원), 도봉구(587만원), 강북구(613만원), 노원구(64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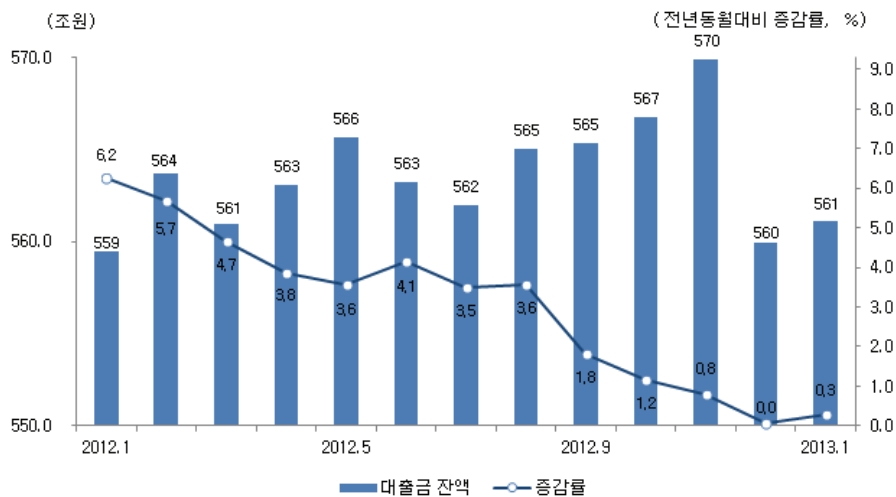
서울의 1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증가

■ 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1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1조 807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1,718억원(0.21%)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2조 4,136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8조 6,671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9% 감소, 5.8% 증가

■ 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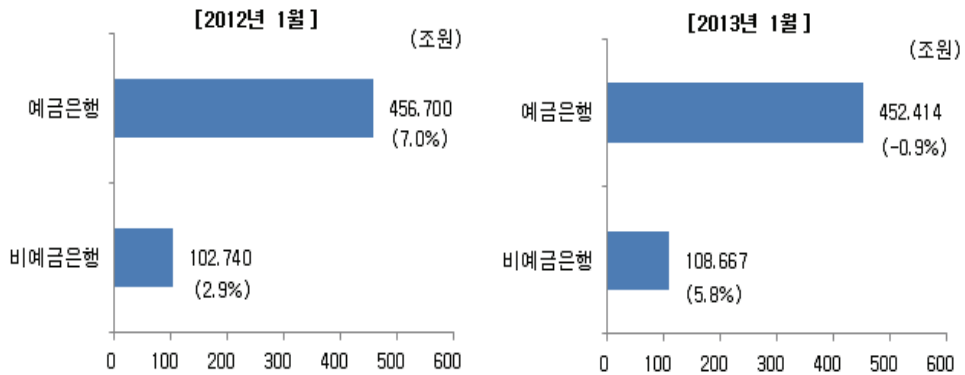
- 1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51조 2,24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 8,487억원(0.13%)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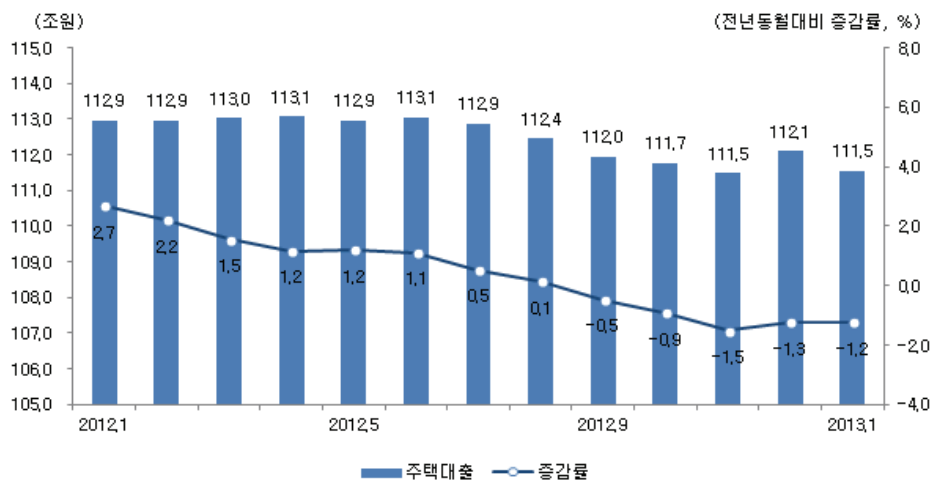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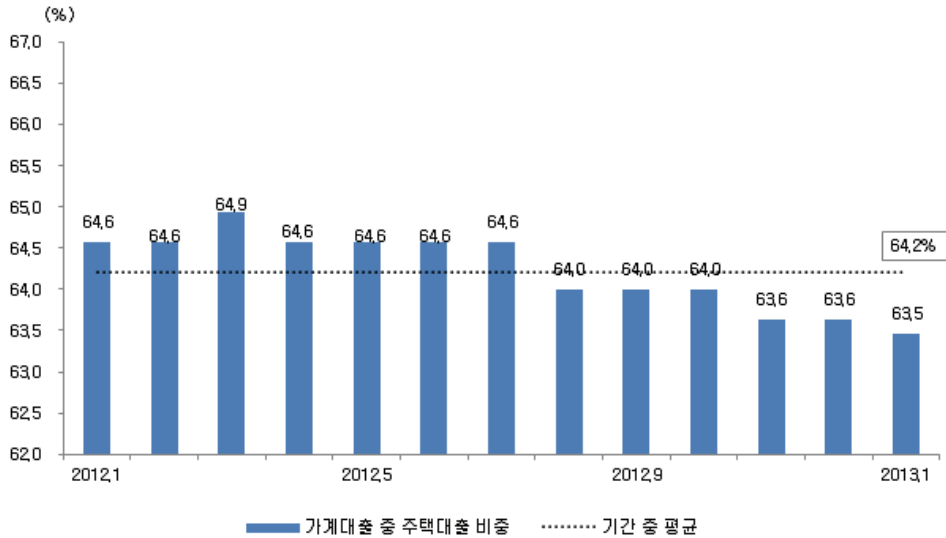
-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823억원으로 전월대비 9,889억원(0.6%) 소폭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5,409억원(64.0%)으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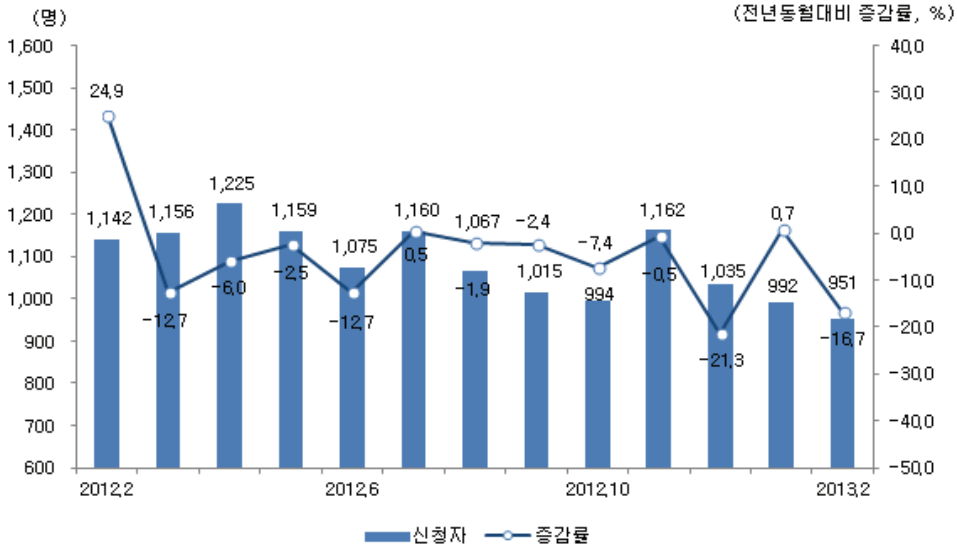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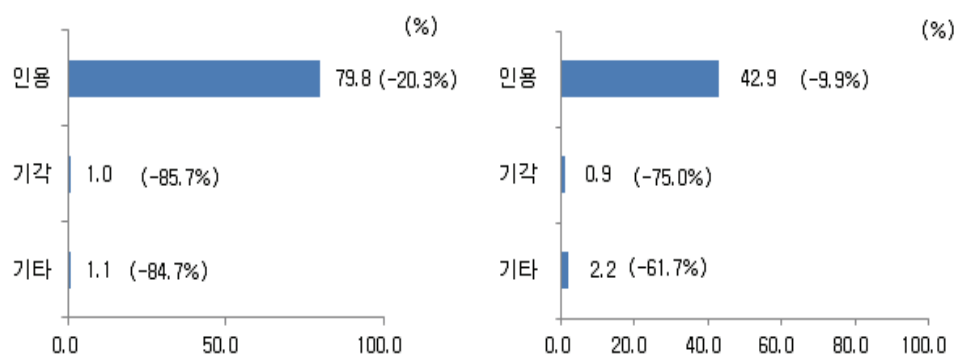
■ 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951명으로 전월대비 4.1% 감소, 전년동월대비 16.7%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0%로 전년동월대비 85.7%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0.9%로 전년동월대비 75.0%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2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2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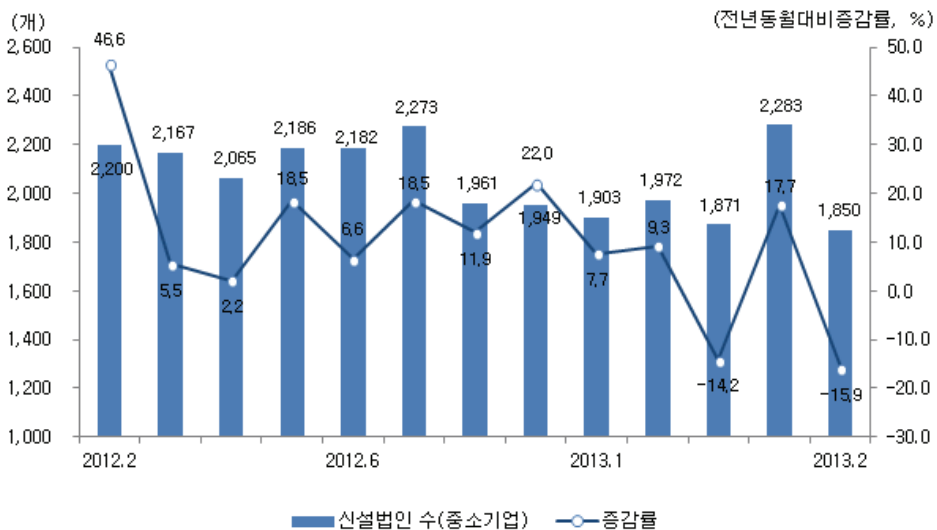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50개로 전월대비 19.0%(433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5.9%(350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29.2%(34개) 감소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29.2%(95개), 16.4%(297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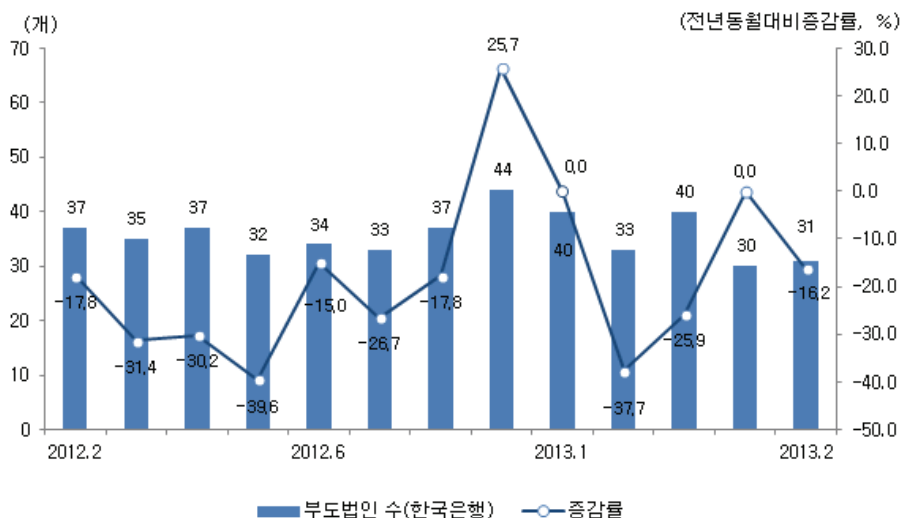
■ 서울의 2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1개로 전월대비 3.3%(1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6.2%(6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업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보합수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66.7%(4개) 증가, 11.8%(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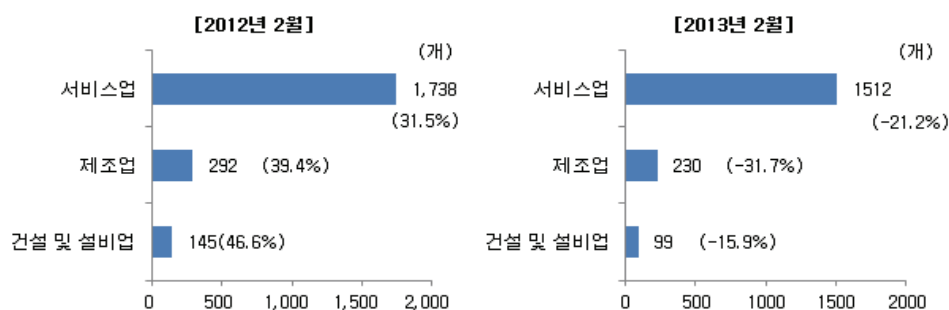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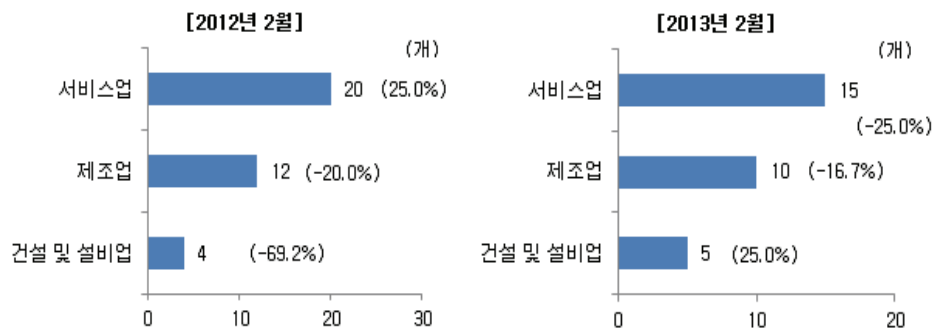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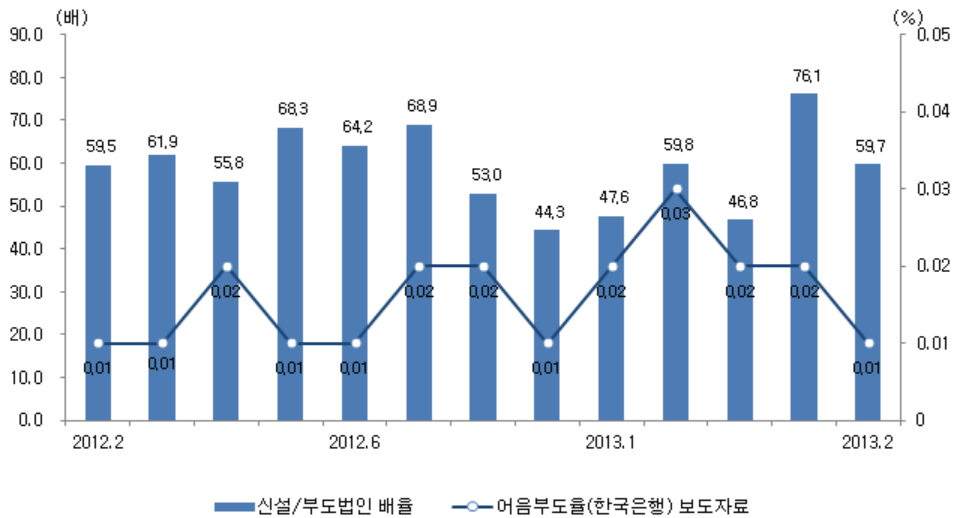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2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9.7배로 전월(76.1배)보다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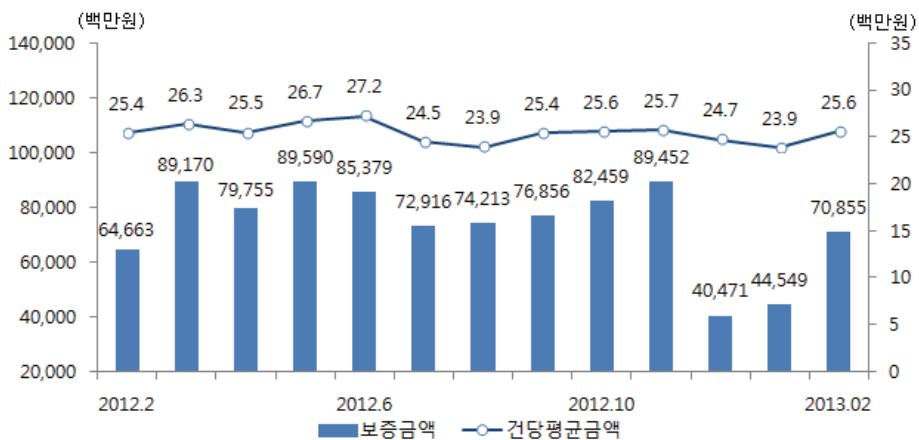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2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70,855백만원, 2,773건으로 전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59.0%, 48.5%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7.3%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9.6%, 9.0%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금액은 0.7%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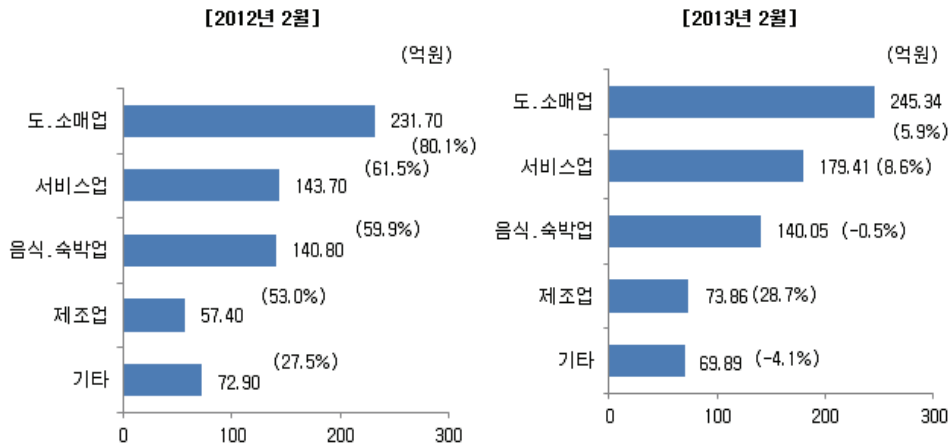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2월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6%로 전월(7.3%) 대비 1.0%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4.6%로 전월(31.4%) 대비 3.2%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8.0%로 전월(8.3%)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5.4%로 전월(33.0%)대비 2.4%p 증가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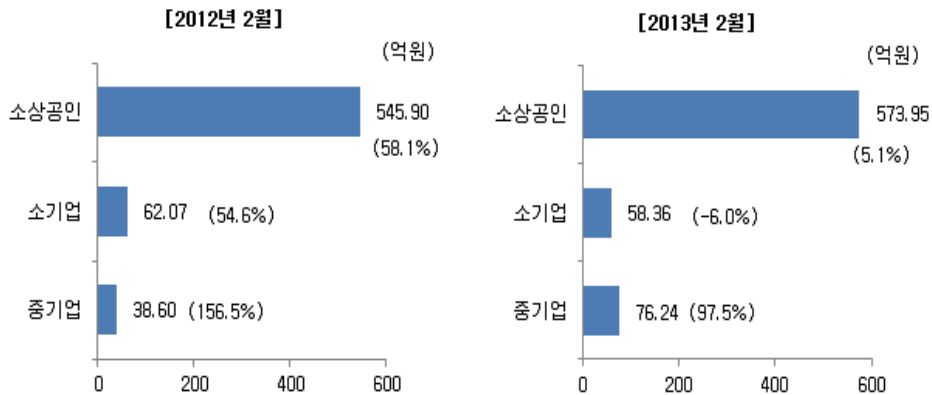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1.0%로 전월대비 0.4%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2.5%로 전월대비 2.2%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2%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2.6%로 전월대비 1.3%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0.8%로 전월대비 0.5%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 4.9%로 전월대비 0.9%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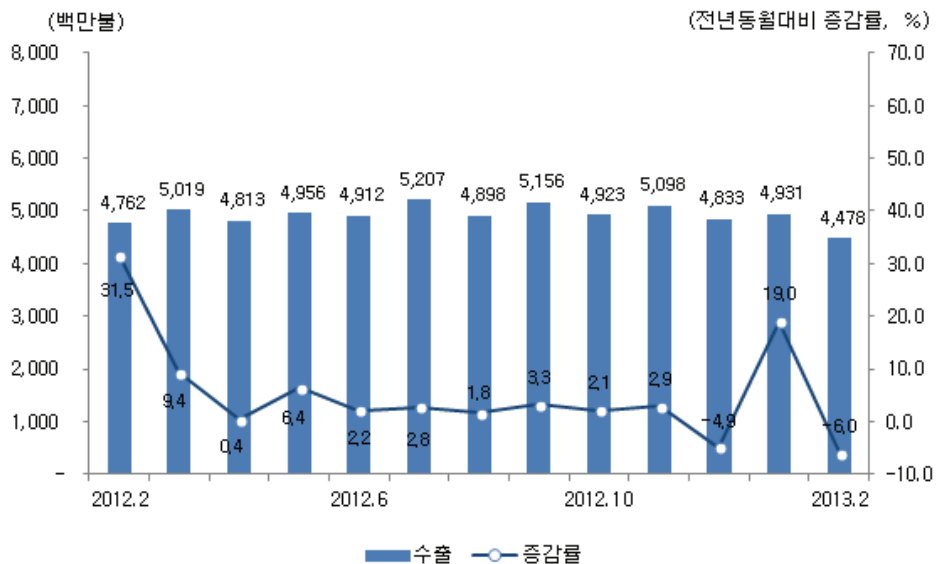
서울의 2월 수출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서울의 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수출은 44.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였고 수입은 9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6%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6% 감소하였고 수입은 403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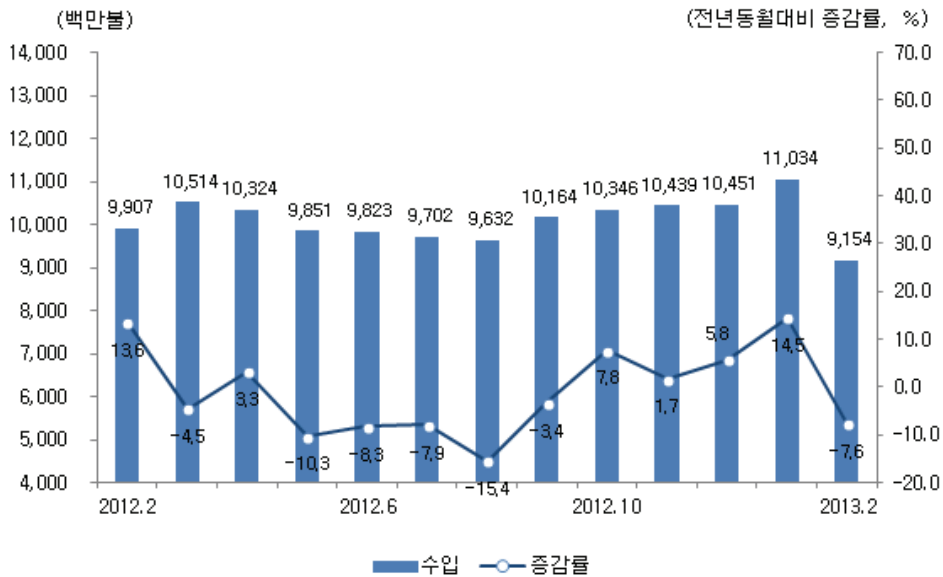
■ 서울의 2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482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89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자동차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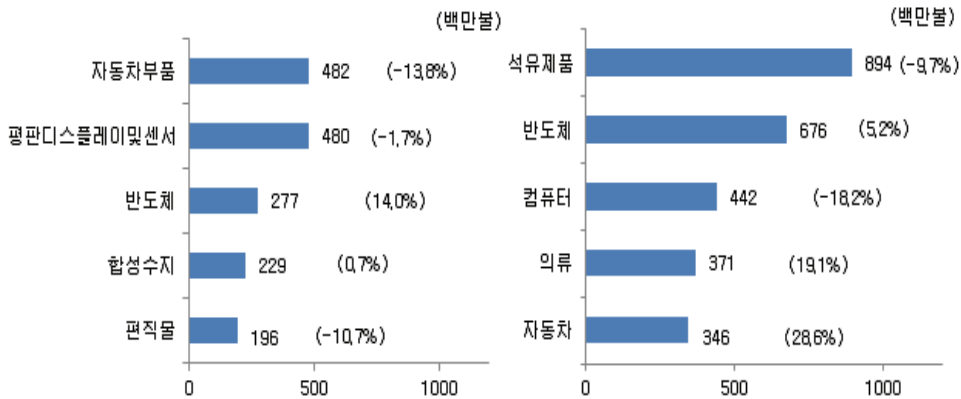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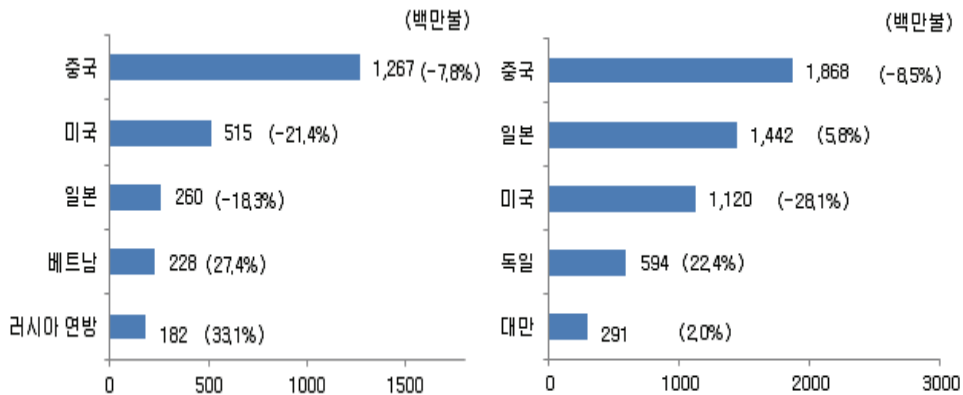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2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1,26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연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8.5% 감소한 1,86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부 록 :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금 융

■ 부동산

1.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09. 4/4	103.1	96.6	101.8	94.8	103.0	99.8
2010. 1/4	98.6	94.0	104.1	96.3	98.8	100.8
2/4	96.4	103.7	95.1	103.1	92.9	95.6
3/4	94.9	101.8	92.0	101.0	99.0	97.8
4/4	110.0	102.3	108.8	100.4	104.3	100.9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101.9
2/4	92.5	99.1	90.8	98.2	100.6	103.7
3/4	98.6	105.5	97.2	106.7	107.8	106.2
4/4	110.6	102.9	111.4	103.1	109.9	106.0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105.7
2/4	94.7	102.6	95.6	104.2	102.6	105.9
3/4	97.3	104.1	94.5	104.1	106.9	105.1
4/4	109.6	103.4	111.1	103.5	109.4	106.0
2011. 2	92.8	98.4	97.6	99.0	99.7	101.8
3	111.3	103.8	112.7	102.9	99.8	101.9
4	99.4	100.4	98.8	98.9	101.6	103.0
5	90.3	97.6	88.0	96.8	102.1	103.7
6	87.8	99.3	85.6	98.9	100.6	103.7
7	93.0	103.6	91.2	105.8	104.2	105.0
8	98.9	106.6	97.4	106.9	103.7	104.3
9	103.9	106.2	103.0	107.3	107.8	106.2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08.7
11	106.9	101.0	104.4	97.8	110.6	106.9
12	115.4	101.1	119.9	102.9	109.9	106.0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104.3
2	108.7	106.9	115.1	109.7	101.1	102.4
3	112.7	105.2	116.3	106.4	103.5	105.7
4	98.7	103.2	101.7	105.0	102.5	104.4
5	94.6	102.1	94.8	103.6	102.5	104.1
6	90.8	102.6	90.3	104.1	102.6	105.9
7	95.3	105.7	91.1	105.5	102.6	103.5
8	97.8	105.3	96.1	105.7	103.7	104.5
9	98.7	101.2	96.3	101.1	106.9	105.1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07.9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09.2
12	112.2	102.3	117.5	103.5	109.4	106.0
2013. 1p	105.0	93.4	113.0	98.2	106.5	105.1
2p	94.8	98.5	105.3	105.1	104.1	106.2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로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출하·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09. 4/4	-2.6	-1.5	103.1	-2.6	-2.7	101.8	-0.5	-10.7	103.0
2010. 1/4	-2.7	8.5	98.6	1.6	10.8	104.1	1.0	-1.9	98.8
2/4	10.3	5.9	96.4	7.1	6.9	95.1	-5.2	-4.7	92.9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1. 2	-8.0	6.1	92.8	-9.7	2.8	97.6	0.3	0.6	99.7
3	5.5	8.2	111.3	3.9	6.0	112.7	0.1	1.0	99.8
4	-3.3	0.5	99.4	-3.9	-0.8	98.8	1.1	4.1	101.6
5	-2.8	-4.6	90.3	-2.1	-4.7	88.0	0.7	4.2	102.1
6	1.7	-8.3	87.8	2.2	-8.4	85.6	0.0	8.3	100.6
7	4.3	-1.0	93.0	7.0	2.2	91.2	1.3	5.1	104.2
8	2.9	6.9	98.9	1.0	7.5	97.4	-0.7	4.9	103.7
9	-0.4	5.6	103.9	0.4	7.2	103.0	1.8	8.9	107.8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p	-8.7	-3.8	105.0	-5.1	-1.2	113.0	-0.8	1.3	106.5
2p	5.5	-12.8	94.8	7.0	-8.5	105.3	1.0	3.0	104.1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2013년 2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2	2013.1	2013.2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397	8,499	8,508	111	1.3
경제활동인구	5,229	5,215	5,225	-4	-0.1
(참가율)	(62.3)	(61.4)	(61.4)	(-0.9)	-
남 자	2,967	2,955	2,942	-26	-0.9
(참가율)	(73.0)	(72.2)	(71.8)	(-1.2)	-
여 자	2,262	2,260	2,284	21	0.9
(참가율)	(52.2)	(51.3)	(51.7)	(-0.5)	-
취 업 자	4,942	5,011	4,984	42	0.8
(고용률)	(58.9)	(59.0)	(58.6)	(-0.3)	-
농림어업	6	4	4	-2	-32.7
광공업	512	476	450	-62	-12.1
· 제 조업	511	476	450	-61	-12.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425	4,531	4,531	106	2.4
· 건설업	343	339	320	-23	-6.6
· 도소매·음식숙박업	1,306	1,320	1,304	-2	-0.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47	2,032	2,062	115	5.9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29	840	844	15	1.8
실 업 자	287	204	241	-46	-16.0
(실업률)	(5.5)	(3.9)	(4.6)	(-0.9)	-
비경제활동인구	3,168	3,285	3,283	116	3.6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2013년 2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2	2013.1	2013.2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4,942	5,011	4,984	42	0.8
직 업 별	관리자전문가	1,379	1,421	1,428	49	3.5
	사무종사자	1,022	1,059	1,067	45	4.4
	서비스·판매종사자	1,209	1,221	1,208	-1	-0.1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6	4	4	-2	-32.8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27	1,306	1,278	-50	-3.7
성 별	남자	2,797	2,827	2,798	1	0.0
	여자	2,145	2,183	2,186	41	1.9
종 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117	1,074	1,065	-52	-4.7
	자영업주	958	925	915	-43	-4.5
	무급가족종사자	159	148	150	-9	-5.7
	임금근로자	3,825	3,937	3,919	94	2.5
	상용근로자	2,324	2,417	2,444	120	5.2
	임시근로자	1,134	1,132	1,102	-32	-2.8
	일용근로자	367	389	373	6	1.6
취 업 시 간 대 별	36시간 미만	522	556	2,043	1,521	291.5
	1-17시간	168	181	227	59	35.0
	18-35시간	354	374	1,817	1,463	413.2
	36시간 이상	4,312	4,308	2,813	-1,499	-34.8
	36-53시간	3,072	3,147	2,295	-777	-25.3
	54시간이상	1,240	1,161	519	-722	-58.2
	일 시 휴 직	109	147	128	19	17.6
	주당평균취업시간	45.3	44.4	37.2	-8.1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 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8 11	4,897	-1.6	194	-4.9	3.8	3,189	5.3
	12	4,853	-1.2	195	-6.6	3,237	4.5
2009 10	4,840	-1.4	192	3.4	3.8	3,306	3.9
	11	4,879	-0.4	216	11.3	3,248	1.8
	12	4,877	0.5	208	6.6	3,261	0.7
2010 1	4,784	-1.1	305	42.5	6.0	3,269	0.8
	2	4,803	1.3	297	21.3	3,263	-1.4
	3	4,846	0.5	267	6.4	3,256	0.7
	4	4,925	1.9	264	3.9	3,184	-1.2
	5	4,995	2.9	219	-9.1	3,167	-1.7
	6	4,988	2.0	221	-5.8	3,177	-0.7
	7	5,013	3.1	234	-4.8	3,144	-2.4
	8	4,962	3.6	223	-0.3	3,209	-3.4
	9	4,960	3.3	225	5.1	3,210	-3.3
	10	4,972	2.7	239	24.1	3,186	-3.6
	11	4,981	2.1	213	-1.5	3,206	-1.3
	12	4,998	2.5	224	7.3	3,184	-2.4
2011 1	4,914	2.7	247	-19.1	4.8	3,246	-0.7
	2	4,947	3.0	274	-7.7	3,186	-2.4
	3	4,980	2.8	286	7.2	3,143	-3.5
	4	5,021	1.9	263	-0.2	3,125	-1.9
	5	5,074	1.6	243	11.1	3,097	-2.2
	6	5,098	2.2	236	6.7	3,079	-3.1
	7	5,089	1.5	226	-3.5	3,093	-1.6
	8	4,962	1.4	223	1.7	3,141	-2.1
	9	4,979	1.4	223	107	3,141	-2.1
	10	5,024	1.0	210	-12.0	3,147	-1.2
	11	5,018	0.7	208	-2.4	3,150	-1.8
	12	4,971	-0.5	223	-0.3	3,181	-0.1
2012 1	4,925	0.2	241	-2.3	4.7	3,220	-0.8
	2	4,925	-4.0	287	13.0	3,168	-0.6
	3	4,991	0.2	253	-11.5	3,164	0.7
	4	5,061	0.8	233	-11.7	3,124	0.0
	5	5,115	0.8	216	-11.1	3,099	0.1
	6	5,105	0.1	226	-4.2	3,110	1.0
	7	5,102	0.3	221	-2.0	3,130	1.2
	8	5,035	0.1	224	-1.1	3,201	1.9
	9	5,057	1.6	212	-8.3	3,197	0.6
	10	5,043	0.4	188	-10.4	3,241	3.0
	11	5,029	0.2	188	-9.4	3,264	3.6
	12	5,027	1.1	178	-20.0	3,289	3.4
2013 1	5,011	1.7	204	-15.6	3.9	3,285	2.0
	2	4,984	0.8	241	-16.0	3,283	3.6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주택매매가격 지수

<2011.6 = 100.0>

연 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6	81.5	79.8	76.1	83.7	82.1	75.7	87.5
2007	88.9	91.4	87.9	95.1	95.2	90.2	99.7
2008	92.5	97.9	97.7	98.1	100.4	100.6	100.4
2009	92.7	98.5	99.1	97.9	99.8	101.0	98.8
2010	1	94.2	100.6	100.9	100.4	101.9	102.4
	2	94.5	100.9	101.0	100.7	102.2	102.5
	3	94.7	100.9	101.1	100.8	102.2	102.5
	4	94.9	100.9	101.0	100.8	102.0	102.2
	5	94.9	100.7	100.8	100.5	101.6	101.9
	6	94.9	100.3	100.5	100.2	101.0	101.3
	7	94.8	100.0	100.2	99.8	100.5	100.8
	8	94.8	99.6	99.8	99.4	100.1	100.3
	9	94.9	99.5	99.6	99.3	99.8	100.0
	10	95.1	99.3	99.5	99.2	99.6	99.8
	11	95.4	99.3	99.4	99.2	99.5	99.7
	12	95.8	99.3	99.4	99.3	99.6	99.7
2011	1	96.3	99.5	99.5	99.5	99.7	99.7
	2	97.1	99.7	99.6	99.9	100.0	99.9
	3	98.0	100.0	99.9	100.1	100.2	100.1
	4	98.8	100.0	99.9	100.1	100.2	100.1
	5	99.5	100.0	100.0	100.1	100.1	100.1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100.4	99.9	99.9	99.9	99.8	99.9
	8	100.9	99.9	99.9	99.9	99.7	99.8
	9	101.5	99.9	99.8	99.9	99.6	99.7
	10	101.9	99.8	99.8	99.8	99.5	99.6
	11	102.3	99.7	99.8	99.7	99.3	99.5
	12	102.4	99.6	99.7	99.6	99.2	99.4
2012	1	102.6	99.5	99.6	99.4	99.0	99.4
	2	102.8	99.4	99.6	99.3	98.9	99.3
	3	102.9	99.3	99.5	99.2	98.6	99.1
	4	103.0	99.1	99.3	98.8	98.2	98.8
	5	103.1	98.9	99.2	98.6	97.9	98.6
	6	103.0	98.7	99.0	98.4	97.6	98.4
	7	102.9	98.3	98.7	97.9	97.1	97.9
	8	102.8	98.0	98.5	97.5	96.6	97.5
	9	102.7	97.6	98.2	97.0	96.0	97.1
	10	102.6	97.2	97.8	96.7	95.4	96.4
	11	102.5	97.0	97.6	96.4	95.1	96.0
	12	102.4	96.7	97.4	96.1	94.7	95.8
2013	1	102.3	96.5	97.2	95.8	94.4	95.5
	2	102.3	96.4	97.1	95.7	94.1	95.2

주: 2011년 6월부터 <2011.6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1.6=100.0>

연 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6	78.2	76.3	75.6	76.9	76.4	75.5	77.2
2007	82.2	81.9	82.0	81.9	82.0	82.4	81.7
2008	84.6	85.2	87.1	83.5	83.3	85.3	81.6
2009	84.7	85.3	87.3	83.4	82.8	84.6	81.4
2010	1	87.4	89.3	90.3	88.3	87.8	88.5
	2	88.0	89.9	90.8	89.1	88.7	89.1
	3	88.6	90.6	91.6	89.7	89.3	89.9
	4	89.1	91.1	92.1	90.1	89.7	90.4
	5	89.5	91.3	92.3	90.4	90.0	90.6
	6	89.8	91.5	92.4	90.6	90.1	90.6
	7	90.1	91.5	92.4	90.8	90.2	90.5
	8	90.4	91.8	92.5	91.1	90.3	90.6
	9	91.0	92.4	93.1	91.8	91.0	91.2
	10	91.7	93.3	93.9	92.7	92.0	92.1
	11	92.7	94.1	94.4	93.7	93.0	92.9
	12	93.4	94.6	94.8	94.5	93.8	93.3
2011	1	94.2	95.5	95.6	95.5	94.8	94.2
	2	95.7	97.2	97.2	97.1	96.8	96.4
	3	97.4	98.5	98.7	98.3	98.6	98.6
	4	98.5	99.2	99.3	99.0	99.2	99.4
	5	99.3	99.6	99.7	99.4	99.5	99.8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100.8	100.8	100.7	101.0	101.1	101.0
	8	101.9	102.1	101.9	102.4	102.8	102.8
	9	103.3	103.8	103.7	104.0	105.1	105.2
	10	104.2	104.7	104.6	104.9	106.2	106.5
	11	104.8	105.0	104.9	105.0	106.5	107.0
	12	104.9	104.9	104.8	104.9	106.3	106.9
2012	1	105.1	104.9	104.9	104.9	106.3	106.8
	2	105.5	105.2	105.1	105.2	106.5	107.0
	3	106.0	105.4	105.5	105.4	106.7	107.4
	4	106.5	105.5	105.7	105.4	106.8	107.5
	5	106.6	105.5	105.7	105.3	106.7	107.5
	6	106.8	105.5	105.7	105.3	106.7	107.4
	7	106.9	105.5	105.7	105.3	106.6	107.4
	8	107.0	105.5	105.7	105.3	106.6	107.4
	9	107.4	106.0	106.1	105.8	107.2	107.9
	10	107.9	106.5	106.4	106.5	107.9	108.3
	11	108.3	106.8	106.6	107.0	108.4	108.5
	12	108.6	107.0	106.7	107.4	108.7	108.6
2013	1	108.8	107.3	106.9	107.8	109.0	108.8
	2	109.1	107.6	107.1	108.2	109.5	109.2

주: 2011년 6월부터 <2011.6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3. 2013년 2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2013.3=100.0>

구 분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매매가격
강 북 구	100.1	99.3	100.2	98.8	1079.9
광 진 구	100.0	99.4	100.0	99.1	1761.7
노 원 구	100.3	99.5	100.3	99.5	1113.3
도 봉 구	100.4	99.5	100.6	99.8	1019.0
동대문구	100.1	99.7	100.2	99.8	1214.8
마 포 구	100.2	99.6	100.1	99.4	1615.4
서대문구	100.1	99.6	100.3	99.0	1222.8
성 동 구	100.4	99.4	100.6	99.1	1645.2
성 북 구	100.3	99.6	100.5	99.2	1221.7
용 산 구	100.7	99.4	100.8	99.1	2446.3
은 평 구	100.0	99.7	100.1	99.5	1201.1
종 로 구	100.1	99.9	100.5	99.6	1640.3
중 구	100.1	99.4	100.1	99.4	1675.3
중 랑 구	100.3	99.5	100.0	99.9	1092.8
강 남 구	99.9	99.4	99.9	99.2	2895.3
강 동 구	99.8	99.7	99.7	99.8	1604.1
강 서 구	100.6	99.6	100.7	99.6	1256.3
관 악 구	100.2	99.6	100.1	99.5	1209.8
구 로 구	100.2	99.6	100.4	99.5	1166.8
금 천 구	100.3	99.5	100.3	99.6	979.9
동 작 구	100.5	99.5	100.9	99.2	1516.3
서 초 구	100.1	100.2	100.1	100.5	2654.6
송 파 구	100.1	99.3	100.0	99.2	2099.9
양 천 구	100.2	99.7	100.3	99.5	1718.6
영등포구	100.2	99.5	100.3	99.4	1545.7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4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p>

연 도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율(₩/U\$)
2006	4.83	5.17	4.48	4.19	1,352.2	955.5
2007	5.23	5.70	5.16	4.77	1,713.2	929.2
2008	5.27	7.02	5.49	4.78	1,529.5	1,102.6
2009 1/4	3.69	6.14	2.45	1.77	1,140.5	1,453.4
2/4	4.09	5.21	2.41	1.93	1,395.2	1,262.3
3/4	4.40	5.58	2.64	1.99	1,659.5	1,215.0
4/4	4.24	5.35	2.82	2.00	1,646.6	1,166.1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2006	19,801	1,717	1,714	16,344	0.06	891
2007	20,063	1,606	1,674	16,555	0.01	735
2008	18,133	1,717	1,520	14,865	0.02	977
2009 1/4	4,163	622	265	3,263	0.03	269
2/4	5,311	769	353	4,166	0.02	187
3/4	5,488	854	401	4,215	0.01	137
4/4	5,439	836	383	4,194	0.03	148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분	2012년	2013년		전월비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서울 계	1,871	2,283	1,850	-433	-19.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10	16	9	-7	-43.8
제조업 계	240	325	230	-95	-29.2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32	35	31	-4	-11.4
섬유 및 가죽	68	61	47	-14	-23.0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3	11	6	-5	-45.5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6	12	2	-10	-83.3
고무 및 화학제품	26	50	31	-19	-38.0
기계, 금속	30	34	30	-4	-11.8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44	78	53	-25	-3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5	6	4	-2	-33.3
기타 제품제조업	16	38	26	-12	-31.6
건설업 계	92	133	99	-34	-25.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	4	3	-1	-25.0
건설업	85	129	96	-33	-25.6
서비스업 계	1,529	1,809	1,512	-297	-16.4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2	2	0	0	0
도매 및 소매업	443	562	395	-167	-29.7
운수업	38	39	32	-7	-17.9
숙박 및 음식점업	46	38	36	-2	-5.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288	376	324	-52	-13.8
금융 및 보험업	186	196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3	100	98	-2	-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34	290	-	-	-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94	104	103	-1	-1.0
교육서비스업	48	45	39	-6	-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3	0	0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16	27	22	-5	-18.5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18	27	463	436	1614.8

자료: 중소기업청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2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2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3년 2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2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3년 2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2월중 어음부도를 동향」
한국은행, 「2013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3월호)

2005년 3월호

[권두컬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정병순

2005년 4월호

[권두컬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2005년 5월호

[권두컬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욱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연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재도약 및 향후 발전 방안|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2005년 6월호

[권두컬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림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5년 7월호

[권두컬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방향|김현아

2005년 8월호

[권두컬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2005년 9월호

[권두컬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한류|황기연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2005년 10월호

[권두컬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김진호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박희석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오승구

2005년 11월호

[권두컬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김성진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한정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홍순영

2005년 12월호

[권두컬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나성린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서승환
2006년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6년 1월호

[권두컬럼]
윤리경영, 환경경영|조동성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윤형호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박희석, 홍나미
[자치구경제이슈]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성린

2006년 2월호

[권두컬럼]
수도권의 경쟁력|왕연균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김경환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정희윤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활성화|전성근

2006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 ...|박희석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
|정병순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견|박래현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오근

2006년 4월호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창호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윤형호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병민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석근

2006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병순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최경규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김상일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동직

2006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신창호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동기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
견조사|박희석, 박지윤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초
를 향하여|황인식

2006년 7월호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송용일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최경규
한국기술평가의 현황|양동우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조유근

2006년 8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라도삼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
구문모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
주성재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성용

2006년 9월호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박정수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안|안종석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임
일영

2006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김철원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찬동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박종구
[자치구 경제이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이기

2006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2006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
로|신창호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
화|정병순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운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정경효

2007년 1월호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
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
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
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정원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윤형호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매카
니즘’로 변신|강현주
[자치구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재고」를 위한 발전방향
|김영수

2007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
|박창일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김남현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킹|원용현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윤·박희석

[자치구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재형

2007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유병규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오찬수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정병순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산업경제센터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경숙

2007년 6월호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김철원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
금기용

서울시 컨벤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진홍석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을 꿈꾸다|강현주

[자치구탐방]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이동명

2007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윤보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전인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
신창호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희·박희석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
제 활성화 방안|윤내원

2007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조경엽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부경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조향문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강현주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박지희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
최영수

2007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 차문중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 고준성
한미 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김범수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 박희석·박지희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권장오

2007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환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 정경원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 신창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 최두은
[생생리포트]
‘가능성에 올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 강현주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경림

2007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 김문환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 장광렬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 박용재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 산업경제센터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 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윤중

2007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 안정숙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 장동찬
서울시 드라마 산업| 고정민
[생생리포트]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덕수

2008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 김경환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하여| 최재현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 홍석기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 박희석·박지희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김상호

2008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박영범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유길상
 외국인력 정책과제|이규용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서울시장개발연구원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서울시장개발연구원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구자선

2008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
 장윤중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이홍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
 |전영재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박희
 석·권태구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
 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기순

2008년 4월호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박영준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장동련
 디자인 서울|윤종영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조달호·김세훈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고광득

2008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전택수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옥성수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라도삼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박
 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황필성

2008년 6월호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김정인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고준호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이부
 형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
 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윤영표

2008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자영업의 현황과 인프라 이상현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 전인우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손민중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자영업의 위험성 조달
호 김세훈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
김재형

2008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박승록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박희석한진아
고유가와 민생대책 이달석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 조달호 김세훈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동욱

2008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외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 김태희
[경제포커스]
외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 이경희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 윤남수
[생생리포트]
경기에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 조
달호 이춘화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김
태두

2008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
김영인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
김민자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 조익래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가칭 「양재 R&D」 벨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
경제 활성화 하익봉

2008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
이주선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임준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과 방향 윤형호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
망 조달호 이춘화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 임수근

2008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 최경수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 이부형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 2助| 김선빈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월호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 박희석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 김선희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선언명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 조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삼각산 관광티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종규

2009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세계 물 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 권형준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 윤형호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 윤주환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김백곤

2009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 김정인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활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 이정택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 박병욱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봉로

2009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 김성수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철| 김문기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 이상규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 조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진호

2009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산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안|부경진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고준호

녹색성장을 위한 LED조명 발전방안|주대영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삼규표

2009년 6월호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변양규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윤형호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허재준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제도 운영|배영철

2009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창석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양재섭

장남중권미리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왕건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다|권장오

2009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력|위정현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장현영

게임한류의 성과|김민규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례|박경호

2009년 9월호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최생림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윤형호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김창래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통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영환

2009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김찬화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여재천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윤수영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 김은혜

2009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 이장재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 문경일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
|이지평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용순

2009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
정희운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크 전략 김찬동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에의 시사
점 |김영수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전략 이미령

2010년 1월호

[이달의 이슈]

디자인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 전략 라도삼

[경제포커스]

다자인을 꿈꾸고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 최성호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
홍석기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양성태

2010년 2월호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 김성태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 임상수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 |김민성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콘텐츠 최용순

2010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령자 가계재정 분석 윤형호

[경제포커스]

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김신영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 |임춘식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
이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
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
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
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특성분석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의 시사점
 박호정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인·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
 호·이춘화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1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
 종인

2010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성호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안|문경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안재현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
 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곤

2010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재도약과 IT융합산
 업|정병순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귀청
의 발전방안|조연숙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조
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
상영

2010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
의 발전방향|송재용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
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
김묵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태섭

2011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
가?|변미리

글로벌 메가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
이관수

2011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 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기업탐방]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SR센터|조달호·정규진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이관수

2011년 4월호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훑어보기 | 김묵한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 | 김상태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 |

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 | 이종관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상필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의 비트컴퓨터의 역할 |

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 방안 | 이갑수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 | 안남우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 | 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 김태홍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 | 진중순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 박희석·한진아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 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 김선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조호정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디컬 | 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이달의 이슈]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 | 김도훈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 | 성한경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 | 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 신상영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 | 박정현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
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찬영
취업부모의 교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홍승아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
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김동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
|이은애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 국내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
양승희

2012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묵한·김범
식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종석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
곽지원

2012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
|나도삼

현사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송기철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
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
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
룡

[생생리포트]

작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
곽지원

2012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
|김태곤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강오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
|김동환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 |홍미영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 |박희석·한진아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창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 |김영생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 |김영미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 CEO의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양승희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
|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 |이종욱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 협동조합금융
의 제언 |김자봉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 |박희석·한진아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지물가 추이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계대출 현황 |서울경제연구
센터

2012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도시 어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 |용호
성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권영돈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 |박희석·양승
희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서울 아파트 평당 (3.3㎡) 전세가격과 증가율 |서
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M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
황 및 상생협력 강화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김범식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박희석·한진아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서울 자영업체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남기철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박희석·양승희

[인포그래픽스]

서울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서울시민 주거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중신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김경혜

중신층의 변화와 대응|김용기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최동욱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남윤형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노희봉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박승돈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석유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창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동주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안해칠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